

차례 CONTENTS

공주문화 2009년 7·8월호



정안천 산책로
사진제공 최근태

등록번호_충남 라01136(1998.6.1)
발행인_나태주, 편집인_현대수
편집주간_이극래
편집위원_김춘원, 신윙희, 오희숙
편집실무_김민영, 우명란
발행처_공주문화원
314-100 공주시 반죽동 184-2
041·852·9005/ 852·7600
E-mail_8529005@hanmail.net
홈페이지_www.culturegj.or.kr
인쇄처_공주신문사
041·853·8111

- 02 공주의 어제와 오늘
옛 충남도청 앞 중심거리
- 03 취임사
문화원에 첫발을 놓으며/ 나태주
- 05 정재옥 원장님 이임에 즈음하여
공주사람들이 드리는 마음의 훈장/ 이걸재
- 07 웅진칼럼
아빠들이여! 집을 나서자!/ 장복환
- 10 공주의 아름다운 간판 ⑧
죽 이야기/ 신윙희
- 12 공주를 사랑한 옛 사람 옛 노래 ⑩
공북루에 올라/ 백원철
- 18 공주의 땅이름 이야기 ⑩
달동네 이야기(2)/ 장길수
- 22 따뜻한 공주사람 이야기 ⑪
우리들의 영원한 학장님-이화영 선생/ 나태주
- 26 사진으로 만나는 옛 시간 옛 풍경 ③
공주읍사무소/ 김혜식
- 28 봉사단체 탐방 ⑭
공주중앙로터리클럽/ 김춘원
- 30 공주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우성면 한천리(2)
- 38 공주의 인물
침의 허임 선생과 침구경험방/ 손중양
- 42 시정 소식
- 46 내고장 소식
- 50 미담
- 52 예술의 향기
- 56 문화원 소식
- 62 청소년백일장

옛 충남도청 앞 중심거리

대통교(大通橋)에서 오늘의 공주사대부고 방향을 바라본 풍경이다.

그쪽엔 충청남도 도청이 있었다. 당시 이곳은 공주의 중심거리로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양복점과 자전거포가 많았다.

길 양쪽으로 우뚝 서있는 전신주와 변압기가 이곳이 도시의 중심지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1920년대 당시의 모습



오늘의 모습



나 태 주 | 공주문화원장

문화원에 첫발을 놓으며

안녕하십니까? 새로이 공주문화원장의 일을 맡게 된 나태주, 인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주문화원은 충남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역사가 깊은 문화원입니다. 일찍이 김영옥 선생, 이관용 선생께서 원장이셨고 정재욱 원장께서 지금까지 원장님으로 계시었습니다. 제가 우리 문화원 회원님들의 뜻에 따라 문화원장의 일을 맡기는 했습니다만, 전임 원장님들의 수준만큼 좋은 원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공주 시민들의 여망을 잘 알아차려 껴안겠 하는데까지는 해 보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애정으로 기다리며 지켜 보아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과정에서도 밝혔듯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 공주문화원의 운영방향은 전통의 계승과 시대적 요구에 따른 변화입니다. 부원장 중심의 기획, 위원회 중심의 실천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회원님들과 상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자율과 책임이 동반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희가 잘 기억하고 있다시피 우리 공주는 한 시절 충청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두루 그러했습니다. 뿐더러 교육의 중심지요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공주는 많은 것들을 다른 지역에 내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 공주가 끝까지 다른 고장에게 내어줄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요 역사입니다. 선진공주, 반향공주, 개명공주의 자존심입니다.

오늘날 모든 지역의 도시들은 문화와 자기 고장의 역사에 주목합니다. 그것은 우리 공주의 경우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양보할 수 없는 고장의 문화와 역사를 빛내는 데에 우리 공주문화원의 주된 임무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저의 생각이 야물지 못합니다. 부디 애정으로 지켜보아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코 그 어떤 억지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대로 물 흐르듯이 따라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쯤 느긋이 기다려주시면 무엇인가 우리 회원님들이 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임하시는 정재욱 원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시었습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문화원에 관여하면서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만 정재욱 원장님에게 공주문화원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즐겨 청춘을 바쳤을 뿐더러 청소년 시절의 푸른 꿈을 바쳤고 그의 장년의 삶 자체를 고스란히 바쳐서 공주문화원이었습니다. 충분히 더 머물러 봉사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만 전국통용의 문화원 정관에 따라 그럴 수밖에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떠나시더라도 재임하셨던 때처럼 애정을 가지고 공주문화원을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거듭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공주를 사랑하는 여러 어른들께 우선 지면을 통해 인사를 올립니다. 앞날에 차근히 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1일

공주문화원 15대 원장 나태주 드림

공주 사람들이 드리는 마음의 훈장

정재욱 원장님 이임에 즈음하여



이 결 재 | 시인 / 향토문화연구가

1995년 10월 백제문화제 행사장.

제가 건성으로 대해온 사람 정재욱을 처음 마음으로 만난 것은 천 5백 명이 출연하고 2만 명이 관람하는 백제문화제 서막식장이었습니다. 분명히 민간인 신분인데 공무원들을 진행자로 자신이 직접 연출하고 있는 정 원장의 모습은 마음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당시 문화원 사무국장이었지만 결코 품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축제 의 현장에서 그것도 전문가들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공무원들만으로 당시로서는 전국 규모의 백제문화제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꾼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놀라웠던 것은 당시의 급여가 말단 공무원인 저보다 월등 적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도 청렴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퇴임하시기까지 14년 동안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정 원장님을 지켜보면서, 또한 함께 일하면서 한결같이 따뜻하고 의리 있는 인간 정재욱을 마음에 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그에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은 참으로 어려운 말이지만 경제적으로 한 번도 넉넉하지 못했을 텐데 한 번도 지조를 흐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문화원장 행세를 자칭하지 않았으며 예술을 잘 모른다는 겸손함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과 문화와 관련된 학계의 여러분들을 지극한 마음으로 대해왔습니다.

그런 세월이 41년이라 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서 41년의 긴 세월이었습니다. 청소년기를 겨우 넘겨 청년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초로에 이르기까지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청춘을 바쳐 일해 온 세월 속에는 문화와 역사의 고장이라는 공주시의 문화 예술과 역사를 오롯이 담아내는 세월이었습니다.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에는 철저하면서도 생활을 차갑게 하신 이관용 전 문화원장님과 32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해 온 인간 정재욱은 언제나 마음이 파스했습니다. 또한 의리와 경우를 중시하였고 의롭지 못한 일에는 허리를 세웠고, 해야 하는 말을 해왔습니다.

향토사학의 중요성과 향토 예술인들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가슴에 담고 살아왔기에 말로만 하는 향토사학자분과 예술인들의 심부름꾼 역할이 아니라 애향심을 키우는 일



로 각종의 문화사업을 통해서 언제나 일할 판을 만들기에 노심초사하였기에, 공주 문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고 문화의 중심축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백제문화제입니다. 1960년대 너나없이 가난 속에서 어렵게 살아오던 시절,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었는데도 지역민들의 힘을 모으고 출향인사들의 정을 모아 전국 3대 문화제로의 위상을 키워왔습니다.

사실 백제문화제에 정부의 지원금이 현재의 개념으로 지원되기 시작한 것은 1986부터였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열면서 지역의 우수 문화 육성이 현안으로 떠올랐고 백제문화제가 축제로서 그에 해당되어 지원이 결정되었지 1960년대부터 1985년까지는 정부의 지원금은 전체 축제예산의 20~30% 남짓이었습니다. 백제문화제 개최 예산의 70~80%를 모금과 출향인사들의 성금으로 개최해온 세월이 20년 가까웠다는 말이지만 옛날의 백제문화제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그때의 축제가 참 축제였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중동 사거리에서 백제문화제를 구경하려면 새벽부터 자리를 잡아야 했던 시절, 금강 백사장에서 여고생들이 추던 등불춤을 구경하려고 2십리 3십리를 걸어 나가던 시민들. 지금처럼 홍보 수단이 많지 않았지만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이 백제문화제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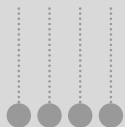
습니다. 그 감동은 이관용 원장님의 지략과 자신을 돌보지 않는 정재욱 원장님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러한 열정은 공주문화원을 충청남도의 중심 문화원으로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공주문화원은 정재욱이라는 이름을 빼고는 상상조차 어색할 만큼 빛나는 세월로 41년을 채워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보내면서 문화 예술인들의 작은 열정을 모아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정 원장님의 지난 세월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며 석별의 정을 간직하고자 합니다.

영원히 공주에서 사실 분이 분명하기에 석별이라는 말이 조금은 어색하지만 우리 모두가 정재욱 원장님의 공주 문화사랑의 공로에 대하여 공주 시민들과 공주를 아끼시는 출향인사 모든 분들의 성원으로 시민이 드리는 마음의 훈장을 준비하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는 것이 문화와 역사의 고장 공주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자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재욱 전 원장



장복환 _

- 2001년 CMB대전방송 방송
작가 공채1기 입문.
- 부동산전문 채널 뉴스팀장
- 현) CMB충청방송 PD

아빠 들 이 여! 집 을 나 서 자!

몇 주 전 주말 저녁 즈음으로 기억이 된다. 숨 가쁜 경쟁 사회 속에서 샐러리맨들에게 주말이라는 시간이 주는 평온과 휴식의 달콤함은 기꺼이 누려야 할 권리쯤으로 인식된 지 오래라고 생각했던 터였다. 그랬기에 이 시간만큼은 너저분한 옷차림도, 감지 않은 머리도 자유로움이 깃든 이를이라는 시간에 충실하기 위한 일종의 상징이기도 했다.

다시 기억을 거슬러, 그 즈음에 주말저녁, 어느 때처럼 필자의 눈은 TV에 시종 머물러 있었다. 주말이면 더욱 높아지는 아내의 꾸지람 소리에도 미동하지 않을 만큼 주말 저녁 TV 프로그램은 어느새 여가의 전부가 되었던 모양이다. 최근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의 소위 트렌드라는 것이 리얼버라이어티다. 여기 저기 대여섯 명의 남녀가 섞여 풍광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잘도 찾아다닌다. 게임도 하고, 춤도 추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시종 유쾌한 웃음 끝에 진한 감동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런 탓에 필자의 최근 시청습관은 그들의 즐거운 여행기에 고정되기 일쑤다.

아빠가 사정이 이렇다보니, 여섯 살 난 아들 녀석도 덩달아 TV에 매진한다. TV 속 그들이 고기를 잡을 때면, ‘아빠도 고기 잡아봤어?’, 너른 갯벌에서 마음껏 내달릴 때면, 아들 녀석은 부러운 듯 ‘나도 갯벌 가고 싶다’를 연신 되뇌는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아들의 뉘두리가 그날은 왜 적잖은 부담과 미안함으로 다가왔던 것일까?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들의 바람이 컴퓨터 게임이나 폭력이 난무하는 만화와 거리가 있다는 점에 일면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필자가 여유로운 주말저녁을 TV 속 연예인들의 여행기에 흠뻑 빠져있는 한, 한 아들의 바람은 더 커져만 갈 태세고, 좀처럼 집 밖을 나서지 않는 아빠에 대해



서도 원망이 커져갈지 모를 일이다.

그랬던 것 같다. 아마도 그래서 유독 아들의 작은 입술에서 흘러나온 크지 않은 원성이 아빠로 살아가고 있는 필자를 잔뜩 움츠리게 했던 것 같다. 돌아보면, 아들 녀석의 손을 잡고 주말 집박을 나선 기억이 다섯 손가락에 꼽힐 만하다. 어렸을 땐, 너무 어리다는 핑계로, 추우면 너무 추우니 감기가 걸려 안 되고, 더우면 더운 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그때 얼마든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른의 권리를 너무 남용했던 건 아닐까? 세상이 주는 신비로움과 자연의 고마움, 아기자기하게 굴러가는 또 다른 세상을 눈으로 몸으로 향기로 느끼게 해주는 일은 어찌 보면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이상적 계획일 게다.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특히나 아빠들 역시 이처럼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고자 하는 욕심을 늘 가슴에 묻고서도 이내 세상이 던진 무게감에 풀썩 주저앉아 버리곤 한다.

생각해보면, 집박을 잠시만 나서도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잠시 동네 슈퍼마켓을 가면서도 도심 속에 위태롭게 선 풀잎들에 시선이 머무는 우리의 아이들이다. 강아지가 종종걸음으로 정처 없는 방향을 하는 모습에도 특별한 감정이 샘솟는 아이들이다. 세상이 말없이 가르쳐주는 삶의 파노라마가 언제든 기다리고 있었을 진데, 어찌면 필자도, 그리고 이 글을 읽고 혹여나 '나도 그랬지...' 라고 생각하는 누군가의 아버지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건 아닌지 새삼스런 반성이 앞선다.

얼마 전, 회사에서 하계휴가 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고심 끝에 휴가를 잡았다. 아마도 처음인 듯싶다. 맞벌이하고 있는 아내와 휴가일정을 맞추고 소위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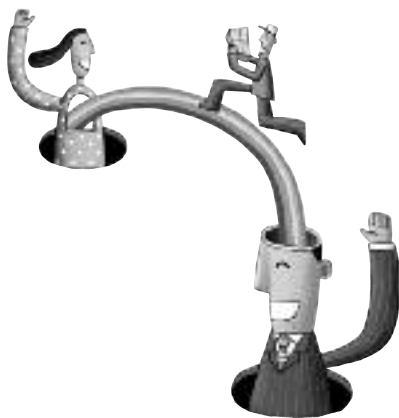
아들 녀석은 벌써부터 설레는지 퇴근 후 여행 가서 무엇을 할 지를 주문처럼 쏟아낸다. 좋은 모양이다. 정말 별스런 일이 아닐진데, 필자는 모처럼 아빠의 몫을 해낸 것 같아 내심 뿌듯하기까지 하다. 주말이면 소파에 기댄 채로 몇 번이나 일어나봤을까? TV 속 연예인들의 즐거운 여행에 부러움 섞인 폭소만 자아내기에 바빴던 필자는, 그때마다 가족과 함께, 아빠와 함께 저들처럼 세상을 뛰고 자연을 안고 싶었던 아들 녀석의 눈빛을 눈여겨봤던가?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왔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직장동료들 사이에서도 ‘휴가 때 뭐하지?’ 라는 질문이 수차례 던져지고, 이 생각 저 생각이 오간 끝에, ‘그냥 집에서 쉬지, 피곤한데...’ 라는 답변이 설익은 토론의 종지부를 찍곤 한다. 아빠들이여! 잠시라도 밖을 나서보자. 아이와 함께, 아내의 손을 잡고 넓은 세상의 품에 마음껏 안겨보자. 어디든 좋을 것 같다. 이 곳 공주는 어떤가? 몇 걸음만 내달리면 창연한 금강의 줄기를 만나볼 수도 있고, 찬란했던 백제역사의 숨결을 느끼며, 고즈넉이 옛 시절로의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특별한 관광지가 아니어도 좋다. 정겨운 먼지를 뿜어내며 시골길로 내달리는 버스에 몸을 싣고 기약되지 않은 곳에 내려도 좋다. 이미 아이들의 입가엔 웃음이 번져있으리라!

아빠들이여! 집을 나서자. 나른함과 피곤의 일상에 지친 어깨도 어느새 펴질지 모를 일 아닌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세상에 뿌리는 행복의 웃음과 힘찬 줄달음이 아빠들의 피로를 일순간 달아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빠들이여, 과감히 집을 나서보자.



작은 간판으로 공주를 아름답게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우리의 생활환경은 점점 윤택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 속에서 접하는 '시각환경'은 '요란하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의 출발은 바람직하지 못한 '불법간판'에서 비롯된다. 간판의 난립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물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원은 <금강뉴스>와 공동으로 '아름다운 공주 가꾸기' 캠페인을 개최, 연속적으로 연재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간판'을 기획·연재하면서 연내 '아름다운 간판상' 시상도 할 예정이다. - 편집자

죽 이야기

자연 친화적 디자인으로 친근감 줘

웰빙에 맞는 우리 전통 음식

세계는 지금 동양음식, 특히 한국음식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음식 수준은 과학과 의학의 세계를 뛰어넘어 신비의 세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

곡물을 주재료로 물을 많이 붓고 오래 끓여 만드는 음식인 죽은 옛날부터 많은 사람이 먹어온 역사가 오래된 한민족 음식이다. 이러한 죽을 현대인에 맞게 과학적으로 변화시켜 호응을 얻고 있는 곳이 있다. 공주시 신관동 '죽 이야기'가 바로 주인공.

죽은 자연에 가까운 식품이다. 죽은 '끼니'를 때우던 과거형 음식이 아니고 또, '환자의 영양식'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도 편견이다.

오늘날 죽은 어린이를 위한 성장발육 죽, 청소년을 위한 두뇌활력 죽, 여성을 위한 헬시 다이어트 죽, 직장 남성인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 죽, 노인을 위한 보양식 영양 죽 등 기능성 죽으로 발전해 왔다.

현재 전국 250개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죽 이야기'는 신명화씨(45)가 2008년 6월, 공주 신관점을 개설하여 공주 건강음식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요즘 인기드라마 <결혼



넓지 않은 실내에도 테마별 죽 사진을 한쪽 벽에 장식, 소비자들에게 선택하기에 쉽게 배려하고 있다.

자연과 친화력 있는 곡물을 재료로 만든 '죽'을 테마로 한 이 집 간판은 곡물 잎사귀와 둥근 줄기에서부터 친화력을 갖게 한다.



못하는 남자》에도 광고가 나가고 있다고 주인은 자랑한다.

자연과 친화력 있는 곡물을 재료로 만든 '죽'을 테마로 한 이 집 간판은 곡물 잎사귀와 둥근 줄기에서부터 친화력을 갖게 한다. 요란하거나 거대하게 제작하지 않은 간판은 웰빙시대에 걸맞게 현대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넓지 않은 실내에도 테마별 죽 사진을 한쪽 벽에 장식, 소비자들에게 선택하기에 쉽게 배려하고 있다. '죽 이야기'는 제 7회 한국프렌차이즈대상을 수상했다.

폭염과 높은 습도에 지친 요즘 날씨에 오늘은 자연식품인 깔끔한 죽 한 그릇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봄이 어떨지….

_ 신용희 | 명예기자

〈간판상식〉

간판이 좋으면 장사도 잘된다?

'좋은 간판은 유능한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가장 믿음직한 영업사원으로서의 간판은 지속적인 홍보수단이며 따라서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된다. 당신 가게의 간판은 과연 바람직한 영업사원이라고 평가하나, 일반적으로 좋은 간판을 위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너무 크게 만들지 말라. _ 거리의 보도 폭은 평균 3m여서 간판이 너무 크면 보행자가 한 눈에 보기 어렵다.
2. 빈 공간을 많이 확보하라. _ 배경이 되는 벽면을 여유 있게 활용하는 간판이 눈에 더 잘 띈다.
3. 너무 많이 달지 말라. _ 간판이 여러 개면 전달하려는 정보가 분산된다.
4. 원색을 쓰지 말라. _ 건물 색과 대비되는 색이 좋다. 원색 간판들이 모이면 눈만 피로할 뿐이다.
5. 글씨는 간판 절반 크기로. _ 글씨가 크다고 간판이 잘 보이는 것이 아니다. 배경이 충분할 때 글씨가 눈에 잘 들어오는 법이다.
6. 글자 크기를 대조시켜라. _ 간판을 통해 먼저 전달할 것이 무엇인지 결정한 뒤 그 내용만 큰 글자로 쓰는 것이 좋다.
7. 상호는 인상적으로. _ 재치 있는 상호는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 함축적이고 인상에 남는 상호가 바람직하다.
8. 알맞은 그림을 곁들여라. _ 글씨보다 그림이 더 효과적인 정보전달 수단이다.
9. 화려함보다는 친근함이다. _ 업소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나치게 화려한 디자인은 거부감을 줄 수 있다.
10. 보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_ 조형물 · 벽화 · 만화 등을 활용해 유쾌한 느낌을 주도록 한다.

공북루(拱北樓)에 올라

백 원 철

- 공주대학교 교수

- 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에 ‘공북루는 웅장하고 물가에 임하고 있어 경치가 좋은 곳이다. 고 소개하였듯이, 역시 공북루는 쌍수정과 함께 공산성의 대표적인 누정이다. 때문에 공주에 부임한 수령이나 이곳을 지나는 한인묵객(韓人墨客)들은 문루에 올라 승경(勝景)에 취하거나 회고(懷古)에 젖어, 그 결과 많은 시문(詩文)이 지어졌던 바, 그 중 몇 수만을 가리어 제시하고자 한다.

①

선조 때의 문신 유근(柳根) 공은 공주와 인연이 깊은 듯하다. 왜란 어간에 두 번이나 이곳에 관찰사로 부임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히 공은 재임기간 중 공산성의 보수와 정비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는 공의 문집인 서경집(西峯集)에 실린 여러 편의 시와 문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용마루 높이 성 머리에 우뚝 섰으니
견고하게 길이길이 위대한 고을을 지키리라
소동파 놀던 적벽은 이곳의 창벽이요
유량(庾亮)이 세운 남루는 곧 공북루로다
호수와 산이 있으니 사람들 자득함이 있거니와
자연은 또 큰 강을 주어 풍류를 뛰어나게 하도다
떠가는 구름도 홀연히 비를 뿌려 시를 재촉하며
맑은 술동이 기울이며 마음껏 즐기라고 하네 그러

高棟新開城上頭
金湯萬古衛神州
蘇仙赤壁今蒼壁
庾亮南樓是北樓
人在湖山應自得
天教江漢擅風流
片雲忽送催詩雨
相我清樽九日遊

- 『西峯集』卷二, 「拱北樓成…」

위의 시에서는 공북루를 지은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다. 그것은 공산성, 나아가 이 고을(지방)을 지키는데 매우 유용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고을을 가리켜 신주(神州)라고까지 일컫는 데에서는, 공주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유근 공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이 공북루를 지은 시기는 대체로 임인년(1602, 선조 35) 쯤으로 추정되는데, 공에게



는 두 번째 관찰사로 부임하였던 기간이다. 아마도 정유년 왜군의 재침에 의해 병화로 소진되었던 것을 이때에 재건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날의 정경을 묘사하여 ‘공북루가 완성되자 공장이들을 모두 불러 뜰에 모아놓고, 술잔치를 베풀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서로 다투어 일어나 춤을 추었는데, 마침 비가 내렸다(拱北樓成 招工匠咸集于庭 饋之以酒 酒闌爭起舞 是日適有雨)’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백성들도 관찰사와 뜻을 같이 하여 힘든 노역에 흔쾌히 동참한 듯하다.

②

광해군 때의 문신 허채(許槩, 1563~1640) 공은 광해 4년(1612)에 여러 달을 공주에 머물렀다.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여 염천군수·형조전랑 등의 벼슬을 거쳤으나 공주에 머물게 된 시기는 관직에서 물러나 있던 때였는데, 당시 조정에서 권력투쟁이 극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아마도 허공은 이때 물러나 마침 같은 당(대북파)에 속한 이경전(李慶全, 1567~1649)이 충청관사로 공주에 있었으므로 잠시 몸을 의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금강가 성 위에 우뚝 선 공북루

錦江城上拱北樓

고향 바라보며 난간에 기대섰네

望鄉人倚曲欄頭

서풍 부는 저물녘 흰 물결 일렁이는데

西風白夕白波起

단풍잎 갈대꽃 속에 떠나는 배 전송하네

楓葉蘼花送去舟

— 『水色集』 卷2, 二十三, 「次拱北樓韻」

고향을 떠나 멀리 공주에 머물고 있는 지은이는 봄철을 다 보내고 어느덧 가을을 맞았다. 그런데도 아직껏 돌아가지 못하고, 다만 공북루에 올라 망향의 심사를 달래고 있을 뿐이다. 이때 해 저물녘 일어나는 금강의 흰 물결과 길손을 싣고 배 떠나는 나루터의 정경은, 작자의 마음에 더욱 스산한 모습으로 보여졌을 법하다.

높다랗게 우뚝 선 누대 석양빛에 의연한데	岾嶢獨上夕陽樓
굽어보는 장강의 물결 도도히 흐르네	俯視長江湛湛流
역사 깊은 강토, 바람 안개 삼백리를 이었는데	故國風烟三百里
흥성한 왕국의 문물을 몇 해나 누렸더냐	興王文物幾千秋
사또는 이 고장의 어른이라 두텁게 백성 돌보지만	使君地主傾深眷
떠도는 몸은 세상 끝에서 깊은 시름 위로할 뿐	遊子天邊慰遠愁
아득한 모래벌에 날던 새는 자취 없는데	漠漠沙汀飛鳥盡
돌아가는 사람들 다투어 건너려 나루터에 웅성이네	歸人爭渡滿津頭

— 『水色集』 卷二, 二十四, 「晚登拱北樓次前呈呂使君」

해 저물녘 공북루에 오른 지은이는, 저녁노을 속에 우뚝 선 공북루와 장엄한 산성, 그리고 도도한 물결로 흐르는 장강을 굽어보며 잠시 회상에 잠겼다. 천 년 전 나라를 열었던 역사 깊은 이 고장의 옛 강토는 수백 리에 달했고 흥성했던 백제 왕국의 문물은 오랜 세월 이어갔었음을 상고해 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자신은 한낱 떠도는 신세임을 자각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돌아갈 곳 있어 서둘러 강을 건너려 다투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나루터의 정경은, 지은이에게 더욱 처연한 심정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 시에서의 사군(使君)은 여우길(呂祐吉) 공주목사를 가리키는데, 이 당시는 앞서 언급한 이경전(李慶全)이 관찰사, 여우길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공산지(公山誌)를 통하여 이들의 재임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바, 임자년(광해 4, 1612)임을 알 수 있다.

③

저촌(樛村) 심육(沈鎭, 1685~1753)공은 본관은 청송이며 부(父)는 영조 초기 영의정을 지낸 수현(壽賢)이다.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의 문하에서 배워 성리학에 밝으며 40세에 왕자사부로 벼슬에 나아가 뒤에 다섯 차례나 대사헌을 역임했다.

공이 공주에 관한 글을 남기게 된 것은 아마도 아버지 심수현이 충청도관찰사로 부임(숙종 40, 1714)하게 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강가의 높다란 누대 붉고 푸른 잎 돌렸는데
 먼지 낀 성벽엔 등롱이 얼마나 걸렸더냐
 서로 만나 추억하노니 가을에 거들 만났었고
 노래하며 즐거움 나눔에 자리를 함께 하였었네
 아름다운 이곳도 오늘까지 큰 아픔 안고 왔으니
 임금 받들던 당일엔 행궁이 설치되었네
 훌륭한 조정에서 오히려 방비를 중하게 하여
 이미 호서 백성들에게 환란을 벗어나게 하였네

江上高樓襯碧紅
 幾多塵壁罨紗籠
 逢迎尚憶重秋會
 歌吹交歡一席同
 勝地卽今藏浩劫
 奉天當日設行宮
 聖朝尚軫重門禦
 已識湖氓避轉蓬

— 卷二, 二十, 「拱北樓」

울긋불긋 단풍이 짙은 가을철에 공북루에 오른 지은이는, 지난 때의 아픈 역사의 한 순간을 떠올리며 회상에 잠기고 있다. 그것은 곧 100여 년 전 이괄의 난을 피해 몽진하여 이곳에 인조의 행궁이 들어섰던 곳임을 상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지은이는 풍류를 즐겼던 듯하다. 공북루에서 연회를 베풀고 다음과 같이 읊기도 하였다.

곱게 치장한 기녀들과 누대에 오르니
 풍악도 성하게 강 위에 울리도다
 행인들도 풍류의 즐거움을 아는 터라
 강변의 배들도 모두 누각이 있다네

珠翠凝粧擁上樓
 急絃豪竹韻江頭
 行人亦解風流事
 多少沙邊盡閣舟

취하여 술병 두드리며 내려가지 못하니
 한 해의 가을 풍경 금강 가에 깊구나
 아리따운 님들아 이별 곡을 부르지 말라
 푸른 물결 배위에선 날마다 석별이 있다네

醉拍金壺不下樓
 一年秋色錦江頭
 佳人莫唱陽關曲
 日日滄波有別酒

— 卷二, 九, 「歸路至公州…」

④

조선 후기에 조병현(趙秉鉉, 1791~1849)이란 인물이 있다. 호는 성재(成齋)이며 본관은 풍양(豐壤)이다. 32세에 문과에 급제한 뒤 홍문관 교리, 성균대사성, 좌승지, 이조참의, 공조참판을 거쳐 1833년(순조, 33년) 42세에 공충도(公忠道) 관찰사에 임명되어 약 1년 반 쯤 이곳 공주감영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므로 공주관련 시문(詩文)을 남긴 것은 곧 이때임을 알 수 있겠는데, 마침 국왕의 탄신일이 되자 공북루에 올라 예식을 거행하면서 흥겨운 정경을 읊었다.

이름난 누대에 기쁜 마음으로 깃발 세웠는데
좋은 계절 가을에 한 차례 비 지나갔네
빛깔 고운 천위에 모여 앉은 기녀들의 노래소리
수조가 곡조는 임금 은혜 감사하는 내용이라오

名樓志喜擁牙旂
令節千秋雨一番
隊隊華粧紅妓唱
水調歌是感君恩

— 卷五, 「誕辰日登拱北樓」

공북루





⑤

한말(韓末) 문장 4대가(文章四大家)의 한 사람인 창강(滄江) 김택영(金澤榮, 1850~1927)에게도 28세(1878)에 지은 「공북루」 시가 있다.

금강의 푸른 물 바닥이 흰히 보이고
가을 산 그림자 속 성벽이 거꾸로 비치네
옛적 임금 머문 곳 풍운의 기색이 돌아
웅장한 요새지에 창검소리 들리는 듯
북쪽 사람 기러기 앞서 이르러
남쪽지방에서 배에 몸을 싣는다네
공명도 못 세웠다 해서 한할게 무어나
산천만은 나그네 마음을 흡족케 하네

錦江淸見底
秋影倒層城
行在風雲氣
雄關劍槩聲
北人先雁至
南國有舟橫
未恨功名薄
山川愜遠情

— 『韶濩堂集 詩集』 卷二, 「公州拱北樓」

창강은 개성태생으로서 젊은 시절 문명을 얻었으며 전국을 유랑하며 곳곳의 문인한사(文人翰士)들과 교유하였는데, 예를 들면 구례의 매천(梅泉) 황현(黃玹), 강화의 영재(寧齋) 이진창(李建昌), 경기 광주(廣州)의 추금(秋琴) 강위(姜偉) 등인데, 이들이 곧 한말 4대가로 불리는 인물들이다.

뒤에 창강은 1891년 이후 통정대부가 되어 관직에 잠깐 나아가기도 했으나,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중국으로 망명하여 청나라의 학자들과 교유하면서 조선의 학자로서 명성을 얻었다. 조국독립의 염원을 안고 『한국역대소사(韓國歷代小史)』 등 저술을 통하여 망국민(亡國民)의 민족의식을 일깨우고자 노력하였다.

달동네 이야기(2)

장 길 수

- 봉황중학교 교장
- 공주향토문화연구회 회원
- 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위원



1. 비달과 벼랑

지난 호에서 양달과 음달에 대해 살펴보았다. 즉 햇별이 잘 드는 산이 양달이요, 햇별이 잘 들지 않는 그늘진 산이 음달이다. 이와 관련된 말로 비달도 있다. ‘비달’이란 비스듬한 산지를 일컫는다. 이 ‘비달’이 변하여 지금은 경사진 산지를 ‘비탈’이라 부르고 있다.

이 비탈이 경사가 더 급해져서 이루어진 낭떠러지를 벼랑 또는 벼루라 한다. 이 벼랑에 대한 지명은 전국 도처에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문경의 토끼벼루, 정선의 곧벼루 등을 들 수 있다. 공주에도 ‘베루산’이 있다.

베루산

초등학교 시절 산성동에 살았는데, 그때 월송동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간 적이 있다. 장길대 나루에서 배를 타고 금강을 건넜다. 당시는 강 양쪽 나루터에 밭줄을 연

결하여 놓고 그 줄을 당겨서 배를 건넜다. 지금도 기억이 새롭다. 옥룡동 계룡산지구대(옥룡파출소) 부근에서 출발하여 북쪽 금강홍수통제소 부근의 나루터에 닿았다.

북쪽 나루터 부근에서 강을 따라 가파른 절벽으로 이어진 산고개를 넘어야 했다. 당시는 이 고개의 이름을 알지도 못했지만 그 후 어른들의 얘기에 의하면 석방현(石方峴, 돌곶재)이라 했다.

석방현은 시목동과 월송동을 이어주던 주요한 통로였다. 이 석방현 고개가 있는 산을 사람들은 이산(李山) 또는 이도산(李棹山)이라 불렀다. 어떤 사람들은 베루산이라고 한다.

이산(李山)이라 불리는 연유는 전의(全義) 이씨의 선산(先山)인 이도(李棹)의 묘소가 있기 때문이다.

베루산이란 벼루산의 사투리이다. 보통 험하고 가파른 비탈을 벼랑이라 하고, 강가나 바닷가의 낭떠러지를 벼루라 한다.

지금은 석방현 고개가 있던 자리가 정

비되어 4차로 도로가 개설되어 낭떠러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나룻배 시절, 장깃대 나루를 건너 월송동으로 이어지는 길은 가파른 강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한 연유로 벼루가 있는 산이라 하여 벼루산이라 불려오다, 베루산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석방현(돌곶재, 시목동 ~ 월송동 경계. 1995년)

2. 산 이름 달과 하늘의 달

지난 호에서 달동네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지명에서 ‘달’이 그저 ‘산’의 의미로 쓰인 예가 많이 있다. 그런데 산으로 쓰이는 이 ‘달’이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발음이 같아 한자화하면서 달 월(月)의 ‘월’자로 많이 바뀌었다. 특히 지명에서 산으로의 달이 ‘달 월(月)’의 월(月)자로 많이 쓰이고 있다.

※ 베루산과 호태산

신관동과 월송동 사이의 산을 흔히 호태산이라 부른다. 호태산이란 이름이 언제부터 불려 왔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책자나 지도에서는 일찍부터 정산(丁山), 이산, 또는 베루산이라 불려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록하고자 한다.



공주대교 남단에서 본 꽃대봉과 베루산(2008. 10. 12)

1) 월산천과 월산교

하천 이름이나, 다리의 이름은 동네 이름을 이용하여 이름을 짓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월산천과 월산교는 월산에 있는 하천이며 다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 하천과 다리가 있는 곳의 땅이름은 월산이 아니라 계룡면 월곡리이다. 그러므로 월곡리는 월산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 1974)에 의하면 계룡면 월곡리는 달산, 다리실, 또는 월산이라 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월곡리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한다. 불과 3~40년 전의 일들이 지금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과거가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땅이름을 알고 있는 어른들이 세상을 뜨기 전에 땅이름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한다.



월산천과 월산교(공주-논산 경계)

2) 월은동(月隱洞)

베루산(이산)월은동은 사곡면 화월리의 한 마을이다. 화월리는 여러 마을이 합치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화계리와 월은동의 머리글자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이름이다.

월은동은 ‘울안이’ 또는 ‘워란동’이라고도 불렸다. ‘울안이’는 지형이 울 같은 안쪽에 있으므로 그렇게 불렸다고 한다.

워란동은 월안동으로 월(달) 안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즉 산(달)으로 에워싸여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월은동 사진에서 이 마을은 보듯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월은리는 정안면에도 있는데 여기서는 ‘워라니’라고 한다. ‘워라니’도 ‘월안이’가 변한 말이다. 월은리는 중산리와 합하여 지금은 월산리가 되었다.

3) 월곡(月谷)

산골짜기를 의미하는 ‘달실’, ‘다리실’,



월은동(사곡면 화월리)

‘다래울’ 등의 한자 표기가 월곡(月谷)이다. 우리나라 도처에 이 이름이 많이 분포한다. 행정 지명의 명칭으로 계룡면과 의당면에 월곡리가 있다. 의당은 월계리와 덕곡리가 합치면서 생긴 이름이다. 마을 이름으로는 우성면 목천리에도 월곡이 있다.

4) 월하리(月下里), 월가리(月珂里)

월가리는 사곡면에 있는 이(里) 이름이다. 월하리와 명가리(鳴珂里)가 결합하여 생긴 새로운 행정지명이다.

월하리는 명가울 동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달앗골(다락골)이라고도 한다. 봉래산 달돋이봉 아래에 있기 때문에 월하리라고 불리는 마을이다.

5) 월출곡(月出谷)

월출곡은 계룡면 기산리에 있는 골짜기로 다래울이라고 한다.

6) 월현(月峴)

장기면 봉안리에서 연기군 남면 고정리로 넘어가는 고개. 우리말로 다름고개라고 한다.

7) 월대(月垓)

월대(月垓)는 의당면 송정리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월터라고도 하는데 지형이 달과 같다 한다.

8) 명월대

명월대는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는 풍치 좋은 장소를 의미한다. 공주에는 예로부터 동명월대, 서명월대가 있었는데, 동명월대는 지금의 중동 천주교회, 서명월대는 대우아파트 부근 동산이었다.

9) 기타 월과 관계있는 지명

이와 같이 지명에서 월(月)은 산과 관련이 깊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 이외에도 월(月)과 관계있는 공주의 지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월계 : 의당면 월곡리, 중흥리

월구리(월굴리) : 우성면 단지리

월명대 : 고주개

월미리(월명리 + 상미리) : 신관동

월봉 : 의당면 읍정리

월양(위랑이) : 탄천면 덕지리

월암리 : 계룡면, 신기동



나 태 주

_ 시인

_ 전) 장기초등학교 교장

_ 전) 충남시인협회 회장

우리들의 영원한 학장님

- 李華永 선생

공주지역에 살면서 바깥출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화영 학장님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화영 학장님은 오늘날 공주대학교가 종합대학이 되기 바로 직전 공주사범대학의 마지막 학장으로 계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떠나서도 즐겨 그분을 학장님이라고 부른다. 말하자면 애칭인 셈이다. 이화영 학장님은 일찍이 이름난 수학 교육자였으며 그 이후로는 서예가로 이름이 높은 분이다. 그런가 하면 고미술품에도 상당한 안목을 지니고 계신 분이다. 또한 젊은이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컴퓨터 조작능력이 탁월한 분이다. 말하자면 전인적인 인간적 능력을 지닌 분이라 할 것이다.

그것은 2009년 6월 16일 11시, 공주문화원 원장실에서 <공주문화> 편집의 일을 하고 있었다. 편집회의를 간단히 끝내고 몇 사람이 앉아서 담소를 하고 있었다. 정재욱 원장과 이극래 교장과 그리고 나. 우리의 화제는 자연스럽게 이화영 학장님에게로 집중되어 있었다. 손님용 탁자 유리판 아래 정 원장이 그동안 받아온 연하장이 여러 장 깔려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화영 학장님의 연하장이 가장 눈에 띄었음으로 서다. 정 원장의 말에 의하면 이화영 학장님은 해마다 정성스레 연하장을 만들어 보내주기로 유명한 어른인데, 그 내용이 정성스럽고 글씨체 또한 다양하여 아름다울 뿐더러 연하장이 갖추어야 할 격식을 제대로 갖추었노라 한다. 그것은 품격 있는 연하장의 세 가지 조건으로 연하장 내용을 육필로 직접 쓰고, 보내는 해의 간지(干支)와 받는 이의 이름을 쓴다는 것이다.

그러자 앞자리에 앉아있던 이극래 교장은 이화영 교수님이 당신이 대학에 다닐 때 교수님이셨는데 수학 강의를 아주 재미있게 하셨던 분이라고 회상한다. 그건 나도 조금은 아는 일이다. 나는 사범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으로 초등학교단에 있으면서 방송통신대학을 통해 대학교 과정을 공부했다. 아마도 3학년 과정 수학과 교육에 대한 강의였을 것이다. 대략은 공주교육대학을 협력학교로 지정, 현지 교수로부터 강의를 듣고 학점을 이수토록 되어 있는데 몇 과목만 공주사범대

학으로 협력학교가 지정되어 그곳으로 공부하러 갔을 때, 이화영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바 있다. 어떻게나 강의를 재밌게 하시는지 까다로운 수학강의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였다. 도표와 예화를 많이 들어 수강자들로 하여금 쉽게 강의내용에 접근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충북 청주 교원대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장 연수를 받을 때 이화영 교수님의 특강을 들은 바도 있다. 전국에서 모여든 초·중등 각급의 교장 후보자들을 넓은 대강당에 모아놓고 하는 대형 강의였다. 전체적으로 재미있고 인상 깊은 강의였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아직도 기억에 남는 내용은 인간의 나이와 오관의 기능에 관한 것이었다. 이 교수님은 왜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 시력이 나빠지고 귀도 조금씩 어두워지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었다. 사람이 나이를 먹고 차츰 학교의 교장과 같이 높은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가게 되면 작은 것은 더러 눈감기도 하고 작은 소리는 더러 흘려들을 줄도 알라고 눈도 조금씩 흐려지게 되고 귀도 그렇게 어두워진다는 말씀이었다. 그것은 전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인생론적이고 형이상적인 내용이었지만 오래 오래 간직하고 음미할만한 말씀이었다. 이런 인연으로 나는 이화영 학장님의 정식 대학교 제자는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그분을 은사님으로 모시는 사람 가운데 하나다.

선생의 고향은 논산. 1930년 출생(음력으로 10월 3일이 생일). 올해로 산수(傘壽:80세)의 연세이신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어른이다. 일찍이 공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제 공주사범대학을 졸업하고 6·25 당시 논산중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서울대 사범대학에 편입하여 다시 졸업하고 중등학교 수학교사가 된다. 1953년 23세의 나이로 서울사대 부고에서 1년 근무하다가 그 이듬해 경기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겨 1957년 공주사대 교수로 부임하기까지 대한민국의 내로라는 수재들을 가르친다. 오늘날 이름만 대면 누구나 대번에 아, 그 사람! 하고 알만한 이름들이 떠오른다. 이미 이때 중등학교 수학과 참고서를 7권이나 집필하는 학문적 업적을 쌓는다. 1960년, 상당히 늦은 나이에 논산 훈련소에 입대한다. 나이는 30세, 대학에서는 이미 부교수가 된 뒤였다. 1년여 우여곡절 끝에 교보(한 시절,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했던 특별한 병역제도)로 병역을 마치고 다시 공주사대 교수로 복귀하여 2년 남짓 준비하여 중등학교 수학과 검인정 교과서를 저술하여 전국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동시에, 유명한 수학과 교수로 이름을 드날리면서 미국 미쵸리주 콜롬비아대학에서 명예이학박사를 받기도 한다. 선생이 공주사대 교수로 봉직하면서 가장 두르려진 업적은 이렇게 수학교육자로서 뿐만 아니라 공주사대를 공주대학교로 만든 초석을 놓은 분이라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주사대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어야 한다

는 신념을 지닌 당시 이화영 학장님은 교육부와 서울의 정계 요로를 수없이 찾아다니며 관계자들을 설득한 끝에 1990년도 12개 과를 새롭게 배정받아 공주사대를 공주대학으로 이름을 고친 뒤, 그 이듬해 공주대학교를 발족시키도록 탄실한 주춧돌을 놓았던 것이다.

세 사람이 한동안 이화영 학장님을 화제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출입구 쪽에 인기척이 있었다. 바로 이화영 학장님이셨다. 7월 1일 자로 정재욱 원장이 퇴임을 하고 내가 새롭게 원장에 취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우리 두 사람을 위해 점심 대접을 해주마 해서 찾아오신 길이었다. 선생이 들어서자 이극래 교장이 웃으며 인사를 드린다.

“선생님도 참 양반이 되기는 틀리셨네요. 금방 선생님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오시는군요.”

선생을 맞이해 네 사람은 잠시 차를 마시며 담소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극래 교장은 다른 곳에 점심약속이 있다 해서 그리로 가고 결국 세 사람만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선생이 점심을 내시는 자리. 선생은 미식가이기도 하다. 미리 유성 시내 함 음식점에 예약을 해놓고 우리더러 함께 가자 하셨다. 자동차 운전은 정 원장이 하고 운전석 옆에 내가 앉고 뒷자리에 선생이 앉았다. 일사천리, 유성으로 뻗은 길. 자동차 안에서 나는 선생에게 평생에 지침이 될 만한 교훈의 말씀을 들려 달라 청했다. 선생의 말씀은 다양하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다. 인생을 사는데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재를 최우선으로 살아야 한다. 과거는 화석 같은 존재이고 미래는 신기루 같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해도 그 자리에서 역사에 남을만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신념으로 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예로 군대생활에서 겪었던 일들을 소상하면서도 재미있게 들려주셨다.

식사 자리에 가셔도 선생의 말씀은 강물같이 이어졌다. 주로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과의 일화가 아주 재미있었다. 화제 중에 선생의 입에서는 어려운 고사성어나 문장들이 거침없이 튀어나왔다. 평생을 수학교육을 전공하신 분이라고는 짐작이 가지 않을 정도다. ‘장기신대시동(藏器身待時動)’ (재능을 간직하고 있다가 때를 기다려 움직인다. 『주역』). ‘화광동진(和光同塵)’ (자신의 능력을 부드럽게 화합하여 대중과 같이 한다. 『노자』). ‘고조진이양궁장(高鳥盡而良弓藏)’ (높이 뜨는 새가 없어지니 좋은 활이 소용없고), ‘교토사이주구팽(狡兔死而走狗烹)’ (토끼를 다 잡았으니 개를 삶는다.), ‘적국멸이모신지(敵國滅而謀臣之)’ (적국을 격

파했으니 모신이 가버린다.」,『초한지』). 마지막 것은 긴 문장인데도 줄줄 외우신다. 당신의 연세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면모이시다. 다재다능하시다 할까. 선생은 컴퓨터에도 젊은이 못지않게 취미와 기량이 있어 동영상(UCC)을 자작할 정도요,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서예실력은 한국의 대가 여초(如初) 김응현(金膺顯) 선생한테 사사하여 훌륭한 서체를 구사할 정도다. 선생의 호는 ‘서연(栖然)’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백헌(心白軒)’, ‘관재(觀齋)’, ‘날빛’을 두루 사용한다.



이화영 선생

식사를 마치고 다시 공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30년 전에 보았던 <세계의 어린이>란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1979년, 공주교대 부국 교사로 발령받아 공주에 왔을 때 특별한 영상물 한 가지를 본 적이 있다. 그것은 일본 동경의 TBS영화사에서 세계 56개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것인데 우리 한국 어린이 편에서는 공주에서 사는 두 명의 여자 어린이가 출연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학교 뒷산을 뛰어다니며 놀기도 하고 운동장 가에서 고무줄놀이 땅뺨기 놀이도 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또 어른들에게 한복을 입고 큰절을 올리기도 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담장 너머로 뼈죽이 가지를 내민 채 익어있는 붉은 감이라든지, 낙엽이 수북하게 쌓인 아스팔트길 위로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정겨웠다. 자전거 바퀴에 눌러 바스락거리는 낙엽의 소리는 오래 동안 가슴에 남았다.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한국적인 정취요 바로 공주가 공주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다. 알고 보니 그 영화에 주인공으로 나온 여자 어린이 가운데 한 사람이 이화영 학장님의 따님이라 했다. 그것이 30년도 훨씬 전의 일이니 그 영화 속에 나왔던 선생의 어린 따님도 이제는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날은 옛날이야기도 하고 선생으로부터 격조 있는 점심도 대접받고 유성으로 오가며 좋은 강 의도 듣고 이래저래 기분 좋고 유익한 한 날이었다. 이화영 교수님. 우리들의 영원한 학장님으로 오래 건승하시어 우리들 곁에서 좋으신 어른으로 계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다.

(2009. 6. 19)

공주읍사무소 건물

한때 누구는 즐거운 마음으로 출생신고를 하러 빼그덕거리는 계단을 신나게 올라갔을 것이고 누구는 서러운 마음으로 늦은 사망신고를 하러 갔을 법한 반죽동 221-1번지의 읍사무소 자리, 그 계단을 기억하는지...

공주 사람이 늘거나 줄거나 제일 먼저 알아채던 공주 지킴이 자리. 1920년대쯤 처음에는 금융조합으로 지어졌지만 이후 읍사무소로, 다음엔 시청으로 사용되다가 한때 미술학원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우연히 건물 안의 사진을 찍으러 계단을 올라가본 적이 있다. 몇 컷 찍고 있는데 여학생 둘이 디카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러 왔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미술학원 적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란다. 요즘 이 건물 옆을 지날 때마다 누구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던 이 자리가 앞으로 무엇이 되면 좋을까 상상을 하곤 한다.



김 혜 식

— 새이학가든 대표
— 사진작가



옛 공주읍사무소 건물 누구의 설계로 지어졌는지 알 수 없는 유럽의 고대 건축양식의 붉은 벽돌집, 공주에는 이곳을 제외한 서너 군데의 빨간 벽돌집이 있다. 선교사의 집이 있고 중동성당, 또 지금은 사라진 영명학교 강당 건물 등이 그것이다. 이 건물들이 근대 건축문화 유산으로 남겨질지는 우리가 이 자리에 얼마나 애착을 갖는지에 달렸다.



한때 미술학원으로 쓰이던 1층 통로 이어붙인 또 다른 건물과 연결되었지만 얼마 전에 철거되었다. 베니스에 산마르코 광장엘 간 적이 있다. 성당 앞, 광장 옆으로 노천카페가 즐비하고 그 거리에 앉아 많은 사람들이 베니스를 즐기고 있었다. 이 자리도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 통로를 지나 공연을 보러가거나 전시회를 보러 가면 좋았을 걸... 아쉽다.

미술 학원시절을 그리워하며 여학생 둘이 자신들이 찍은 디카를 들여다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그렇게 추억은 각자의 것이다. 비록 우리가 지은 것은 아니지만 한때 그곳은 아늑하였다.



2층 홀 전경 금웅조합에서 읍사무소로, 시청에서 다시 미술학원으로 변하는 동안 마룻바닥은 그대로인 것 같다. 한때 공주시 재산이었다가 개인재산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사들인 귀중한 공주시의 재산이다. 한참을 마룻바닥에 앉아 버려진 석고상들과 사진으로 놀다 왔다.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들이 결성한 단체 공주중앙로터리클럽



고재수 회장

이번호에는 공주중앙로터리클럽을 소개합니다.

로터리클럽은 1905년 미국에서 창립된 봉사단체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창립된 클럽은 변호사 일을 하는 폴 P. 해리스와 그의 친구 3명에 의해 조직된 미국 시카고클럽으로, 머지 않아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지금은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터리클럽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봉사에 힘쓰며, 모든 직업인들이 높은 도덕적 기준을 지켜 나가도록 장려하고, 나아가서 세계친선과 평화의 확립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입니다.

세계 200여 개국에서 3만 2000개의 클럽이 활동하고 있으며, 행동강령으로 세운 그들의 정신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첫째, 진실한가?
- 둘째, 모두에게 공평한가?
- 셋째,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 넷째, 모두에게 유익한가?

공주시에도 여러 개의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주중앙로터리클럽을 소개합니다.

2009년 현재 회원 수는 59명이고, 회장은 고재수 님이 취임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활동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독거노인들께 김장을 담가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2. 고등학교 7개교의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상·하반기로 나누어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 어려운 이웃에게 쌀 80포(10kg짜리)를 설과 추석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4. 로타랙트클럽(공주대 간호학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동곡 요양원생들에게 야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후원하였습니다.

5. 국제로터리클럽과 한국로터리문화재단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6. 통영의 등대로터리클럽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역 특산물 홍보와 교류를 하였습니다.(이 일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많은 봉사를 추진하여 실행하였으며, 로터리클럽의 정신을 널리 알려서 지역사회에서 선의와 평화를 도모하는 사업들을 꼼꼼히 돌보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분발 부탁드립니다.

김춘원 | 명예기자



통영의 등대로터리클럽과 교류



합동체육대회를 마치고



하반기 사회봉사



로타랙트활동



영부인회 봉사활동

우성면 한천리(2)



- 지리적 여건
- 지명과 유래-홍길동의 마을
- 홍길동의 마을-홍길동 산성과 홍길동의 굴
- 한천리의 사찰과 암자
- 무성산의 산제당과 열두동네 산신제
- 중영천의 서당
- 마을의 중요 성씨
- 영천두레
- 인구가 느는 마을(5도2촌 마을)

신령스러운
샘이 솟는 마을
신령스러운
샘이 솟는 마을

한천리의 사찰과 암자

무상산이 남향으로 자리 잡아 산세가 포근하면서도 수려한 한천리에는 두 개의 절과 하나의 암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옛날의 영천사 절터는 현재 보림사(寶林寺)라는 이름으로 조계종 사찰로 등록을 마치고 영천사(靈泉寺)로 복원 중이며 영신암(靈神庵)과 이름 모를 암자(혹은 절)는 터의 흔적만 겨우 남아 있다. 현재의 영천사 위 산자락에 있던 절터는 그 유래를 아는 사람조차 없는데 빈 절터에 산재해 있는 기와장과 일부의 석축이 절터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정도다.

영천사(靈泉寺)

영천사지(靈泉寺)는 마을 정북쪽 무성산 자락 양지바른 곳에 있다. 무성산의 경사가 완만해지는 지점이면서도 절터가 동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절터의 면적이 상당히 넓다.



원형대로 보존된 사찰 뒷담의 모습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빈 절터가 원형대로 보존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절의 뒷담과 앞의 석축 일부는 옛 모습 그대로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농사를 짓는 전답(田畓)으로 개간되면서 대부분 훼손되었고 현재 영천사를 복원하기 위해 절을 짓고 있는 주지 스님이 중장비를 동원하여 토공을 시행하여 예전에 있던 절의 규모를 알아보기 위한 발굴조사의 여지가 없어져 버렸다.

이 절터에서도 많은 기와편이 발굴되었으나 이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대부분 사라지고 현재의 주지가 이곳에서 출토된 기와와 유물들을 모아 관리하는 것이 전부다. 더구나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몇 장의 기와에는 만(卍)자나 한자가 새겨진 기와들이 있었다 하나 현재 전해지는 것은 없다.

다행히 한천리에는 영천사와 관련된 전설이 전한다.

당초 마곡사의 원 절이 영천사에 있었다는 것이다. 마곡사가 지어지기 전에는



새롭게 조성된 절터의 모습



영천사지에서 출토된 기와편들



영천사터의 붉은 기와편



영천사지의 풍탁



영천사 주지가 소장한 고 불서들

영천사가 공주에서 가장 큰 절이었고 신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는데 무성산의 산 기운이 쇠(衰)하면서 밖에 여색을 탐하는 주지 스님이 생겼고 광녀(狂女)와 관계를 갖는 지경에 이르러 산신의 노여움으로 영천사의 기운을 태화산으로 옮겨 버려서 마곡사를 짓게 되었다 한다.

결국 이 전설은 영천사의 규모가 제법 큰 절이었음을 시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천사지에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흐르는 작은 개울이 있다. 이 개울은 산의

상류에서나 하류 모두가 숲에 가려진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유독 영천사 앞에서는 바위 사이를 헤집어 흐르고 작은 폭포를 이루기도 한다. 폭포의 규모나 모습은 다소 초라한 정도에 불과한데 마을 사람들은 이 폭포를 무릉폭포라 칭한다.

폭포의 하단 양편 바위에는 글들이 새겨져 있다. 폭포의 오른쪽, 즉 절 쪽 암벽에는 와선대(臥仙臺)라는 글씨가 행서체로 새겨져 있는데, 예전에는 이곳에 사람 몇 명이 편히 누울 만큼 넓은 바위가 있었다 하지만 1998년 큰 비에 아래로 굴러

내려가고 지금은 글씨가 새겨진 바위만 남아 있다.

폭포의 왼쪽, 즉 절의 맞은편 바위 위에는 무릉도원을 닮은 하늘동네라는 의미의 무릉동천(武陵洞天)과 복된 땅 영천이라는 의미의 영천복지(靈泉福地)가 해서 글씨로, 갓끈을 씻는 연못—즉 선비가 마음을 한가롭게 설 수 있는 연못이라는 의미의 탁영담(濯纓潭)이라는 글씨가 예서체로 새겨져 있다.

이 글을 비추어 이곳의 이미지를 풀어 생각하면 <무릉폭포 아래는 선비가 한가롭게 쉬고 신선이 누워 있을 만한 곳이 있기에 마을이 산속에 있으나 무릉도원이고 영천의 땅은 복된 곳>이라는 것이다.

무릉폭포 아래 있었다는 탁영담은 연못의 형상이 없어지고 웅덩이로 남아 있다.

영신암지(靈神菴)

영신암지는 중영천의 왼편 계곡에 있다. 무성산 자락이 한천리에 이르러 좌우로 갈리고 왼편 줄기가 마을 입구의 한천저수지에 이르는데 영신암지는 왼편 산자락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단순히 산자락의 외진 곳으로 비춰질 곳이지만 예전 이곳은 사곡면 월가리에서 공주장에 이르는 직선 산길 길목이었다 한다.

필자가 일반 민속을 채록하기 위하여 1990년대 중반쯤 영신암 터를 찾았을 때는 암자 터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산 계곡을 돌아 올라가면 암자 입구 양편에 평

나무 고목이 있었고 절터 앞에는 사곡 장



가을의 무릉폭포

꾼들이 넘어 다녔던 서낭당 터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이 자리는 외지인들이 산을 매입하여 중장비를 이용, 밭을 일군 때문에 흔적을 찾아보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영신암은 광복 이후까지 암자가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남자 스님이 있었고 해방 직전 여자 비구니가 들어왔다 하는데 마을 노인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비구니라기보다는 무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신암이 없어진 것에 대한 마을 노인들의 증언은 둘로 나뉜다. 그 하나는 한국전쟁 당시 퇴각하던 인민군들이 이 마을



무릉폭포 석벽의 글씨들

을 지나갔는데 그들이 불을 질러 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방 후에 있던 비구니가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불을 지르고 떠났다는 것이다. 전자든 후자든 영신암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보여진다.

영신암 터의 소멸만큼 안타까운 것이 또 있다. 암자 터 옆 고갯마루에 있던 서낭당의 소멸이다. 1990년대 중반 서낭당에 서 있던 나무와 돌무지가 참으로 예스러워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이 역시 받을 일구면서 없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영신암의 복원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하여도 사찰 터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기본적인 답사만이라도 이루어진 후라면 아쉬움이 없을 일이지만 사찰의 터



무릉폭포 석벽의 글씨들

전도 서낭당도 모두 멸실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무성산의 산제당과 열두동네 산신제

하신의 산신당은 건물의 위치가 매우 독특하다.

일반적으로 산신당은 산과 방향을 같이 한다. 즉 건물의 방향이 산과 같아서 건물의 뒤가 산의 주봉이고 앞은 마을을 향하도록 지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한천리의 산제당은 옆으로 지어졌다.

산신당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마을의 북서 방향 무성산 자락으로 무성산의 오른쪽 줄기 중간에 있어서 산은 동향(東向)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산신당이 동향이어야 맞

는데 남향(南向)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동향으로 지으면 건물의 앞이 터진 형상인데 남향이라서 앞이 막혀 있다. 산제당은 한천리의 윗 영천 뒷산 중에서 깊은 골의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는데 건물의 오른쪽이 뒷산이고 왼쪽이 마을이라서 마치 산과 마을을 모두 외면하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산신당의 방향에 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옛날부터 그렇게 있었기 때문”이며 특별한 사유는 없다 한다.

이 산신당은 전통 목조 건물로 잘 지어졌다. 본디 이 산제당은 목조 함석건물이었다. 이는 1993년 당시 공주군 시절에 이병하 군수가 이곳 산신제를 참관하고, 12개 마을이 함께 제례를 올리는 산신당이 너무 초라하다 하여 2회에 걸쳐 당시의 예산 1천3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 터의 주인인 박병률(사망-박진규 씨의 부친) 씨가 터를 희사하여 소유권까지 이전해주어 현재의 건물로 지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에

일곱 개의 마을(행정리) 주민들이 모여 산신제를 올린다. 특이한 것은 해방 후까지만 해도 한천리 사람들은 누구도 이 산신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천리에 자리한 산신당의 산신제인데도 한천리 사람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신응리, 도천리, 내산 1.2구I장터, 증말, 동성), 지금의 월미동(당시의 월미리)에서 결성된 부전



옛 서낭당 터 남쪽의 산길 고갯마루의 모습



옛 절터임을 알려주는 석축의 모습. 영신암터 아랫자락에 남아 있다.



고추밭이 되어버린 영신암터. 팔을 벌리고 선 자리가 옛터였다.



한천리 산제당의 모습

대동계(浮田大同契 - 일명 품밭골 대동계) 계원들이 정성을 모아 산신제를 올렸는데 근년에 들어 한천리에 사는 사람 중 임제세, 김용기, 김만수 등이 함께 계원으로 동참하면서 한천리 주민들의 안녕을 비는 소지를 올려준다고 한다.

한천리 주민들이 산신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 한천리 주민들 중 일부가 참여하기 전까지 한천의 산신당이 초가지붕이었는데 매년 한천리 사람들이 벼짚을 추렴하여 지붕을 새로 해 이었다 한다. 한천리 외 마을의 양반들이 모여 올리는 산신제라서 그러했다는 이야기인데 한천리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하여도 헌작 등 중요한 제례는 양반들만 하였기 때문에 한천리 주민들은 소외감을 심하게 느껴서 한천리 마을 주민 전체의 의견으로 산신제를 불참하였으며 지붕을 해 이는 일 또한 3~4년 동안 계속해 주다가 중단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해방 후 한천리 주민들 중에서 일부가 참여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외지에서 이 마을로 이사온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다. 한천리 산신당에서 산신제를 올리는데 한천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계원들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러한 항의가 받아들여져 협의한 끝에 희망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연으로 부전대동계가 양반들만 모여서 계를 조직하였다 하나 꼭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현재까지도 보전대동계에서는 1천3백여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땅의 임대료를 기반으로 산신제를 올리는 경비를 충당한다.

무성산 산신제(山神祭)

한천리 무성산 산신제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자연 마을로 볼 때 12동네, 행정리로 볼 때 7개 리에서 참여하는 산신제라는 것이다.

무성산 산신제는 시월 초하룻날 올려진다. 신에게 올리는 고사를 조금이라도 깨끗한 날을 잡아서 해야 하는데 사람이 모두 부정한 일을 해야 살아가기 때문에 제사를 올리는 달(月)이라도 부정한 것이 적어야 해서 10월이며 초하루라고 한다. 고사에 드는 비용 전액을 부전대동계의 경비로 충당한다.

한해의 산신제는 엄격히 말해서 그 전년도 음력 10월 27일에 시작된다. 10월 초하루 산신제를 3일 정성으로 올리고 나면 당년도 산신제의 결산을 위해서 총회

를 개최하는데, 그날 산신제 경비와 진행에 대한 결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년도의 유사를 결정하고 다음 년도의 산신제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고사가 올려지는 절차 역시 경건함으로 일관한다. 풍장은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으며 고사가 올려진 후에도 풍장을 치지 않는다.

마을에서 선정한 유사(有司)가 세이레(14일) 동안 첫새벽에 찬물로 목욕을 하여 자신의 심신을 깨끗이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산신제가 시작되어 초하루 전 공주 장날이 되면 대동계의 총무와 이장이 제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 마을에서는 이 일을 ‘장을 본다’고 표현하는데 신성한 일에 쓸 물건을 산다 하여 물건의 가격을 깎지 않고 사는 것이

관례다.

준비하는 제수는 3일 전 술 담기, 통돼지 1마리, 서 되 서 흙의 백설기, 밤, 대추, 사과, 배, 명태 1죽 등 다른 마을과 유사하다.

고사를 올리기 한 시간 전에 제주, 유사, 봉축, 마을의 이장과 지도자, 대동계 총무 등 6~7명이 제수 음식을 지게에 지고 산에 오르는데 유사의 집을 출발하면 누구도 입을 열어 말하지 않는다.

산신제의 방식은 유교식이며 산신각에서는 음복조차 하지 않고 한천리 마을회관으로 이동하여 음복을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이채로우나 제례의 절차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

〈다음 호에 계속〉



한웅 선생이 서당을 운영하였던 한천리 마지막 서당의 터

곰나루 건너 ‘침뜸의 메카’ 있다 침의(鍼醫) 허임(許任) 선생과 침구경험방

손종양(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우리나라 의술을 대표할 침뜸전문서인 침구경험방이 간행된 지 365주년이 됐다. 그 집필자인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에는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침구경험방 필자 허임의 공을 기리기 위해 허임의 부조묘(사당)가 있었다고 공산지(公山誌)에 기록되어 있다. 이 부조묘가 언젠가 소실된 이후에는 침구경험방의 집필지에 허임의 업적을 기리는 흔적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지난 6월 20일 이곳 내산리에 ‘침구경험방 집필지’라고 새긴 기념비가 세워졌다.

부모의 병 때문에 터득한 의술로 어의 되다

침구경험방을 저술한 허임(許任)은 1570년 경에 장악원 악사(樂師) 허억봉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부모의 병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의원 집에서 일을 해주며 침뜸을 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의술을 터득한 침의(鍼醫)였다. 허임은 침구경험방 서문에서 “명민하지 못한 내가 어려서 부모의 병 때문에 의원의 집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오랫동안 공들여 어렵웃이나마 의술에 눈을 뗐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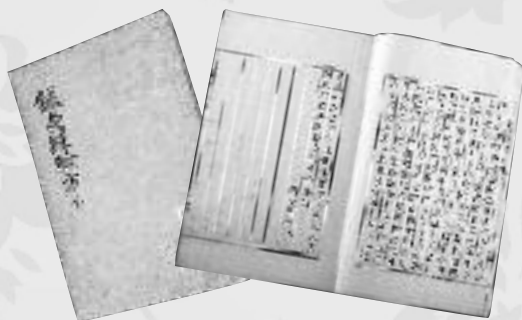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황해도 해주에서부터 광해군을 침술로 치료한 뒤 줄곧 수행하여 충청도 공주와 홍주(홍성) 전라도 삼례 등지를 함께 다니며 백성들을 치료했다. 임진왜란 당시 20대의 나이에 벌써 종 6품의 의학교

수가 될 정도로 의술이 뛰어났다. 그는 치종교수(治腫敎授)로서 전국을 다니며 백성들의 고통을 덜며, 침뜸을 가르쳤다.

일세에 이름이 난 허임은 내의원 침의로 천거되기에 이른다. 이때부터 그는 허준과 함께 활동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1604년 9월 23일 밤 임금에게 갑작스런 편두통이 발작했다. 이때 선조의 편두통을 치료한 의사는 어의였던 허준이 아니라, 침의 허임이었다. 당시 허준은 “소신은 침놓는 법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침의(鍼醫) 허임으로 하여금 임금에게 침을 놓도록 했다. 선조의 편두통 치료 장면에서 허준은 침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고, 침의와의 역할분담에 대해 익숙해져 있었다. 그리고 대략 50대 정도로 추정되는 허준과 30대로 추정되는 허임이지만 허준은 침의 허임의 이론을 존중하고 신뢰를 했다. 그리고 허임은 선조의 편두통을 고친 공으로 일약 정3품 당상관에 오르게 됐다.

허임의 침술이 뛰어나 선조 때 임금을 치료하고, 당상관까지 올랐으나 생활은 어렵기 짝이 없었다. 광해군이 허임을 마전군수로 임명하면서 “허임은 공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재주가 쓸만하다. 그리고 그는 어미와 함께 사는데 궁핍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처지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사대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임



침구경험방(좌)과 침구경험방 활자본

은 광해군 시절에는 부평부사 남양부사 등 지방수령을 지내기도 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등극한 인조 초기까지 허임은 내의원 침의로 활동했다.

관노의 아들이 어의가 된 사연

허임이 침술이 뛰어나 승진할 때마다 그를 따라다니 꼬리표가 있었다. ‘관노의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1617년 광해군이 허임을 양주목사로 승진시키려 하자 사헌부에서는 “허임의 아버지는 관노이고 어미는 사비이니, 비천한 자가운데 더욱 비천한 자입니다.”라고 출생 신분을 들어 강력히 반대했다.

허임가에 대하여 조선 중기의 문신 민인백(閔仁伯)은 자신의 문집 태천집(苔泉集)에서 “허임의 아버지는 양양관노(襄陽官奴)였고 그 어미는 재상 김귀영(金貴榮)의 사비였다.”라며 허임의 아버지 허억봉(許億鳳)이 우의정 부원군에 추증되고, 어머니인 사비에게도 정경부인에 봉한 사실을 극도로 비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허임은 침구경험방 서문에서 하양허임(河陽許任)이라며 자신이 하양 허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가 비록 관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가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적 사건과 관계있는 집안이었음이 확인된다. 하양허씨 세보에 따르면 허임의 9대조는 세종대왕 때 좌의정을 지낸 문경공 허조(許稠)이다. 허조의 아들 허후는 수양대군의 정권 장악에 반대하다 교형을 당했다. 허조(許稠) 또한 사육신과 함께 단종 복위에 앞장섰다가 하양허씨 문경공파 가문이 ‘멸문(滅門)의 화’를 당했다. 계룡산

동학사 옆 숙모전에는 허후와 허조와 허조의 두 아들의 이름이 사육신 등 단종충신들과 나란히 봉안되어 있다.

허조의 동생이었던 허임의 7대조도 이 때 관노에 편입되어 대대로 전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연유로 허임의 아버지인 허억봉 또한 강원도 양양의 관노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허억봉은 어린 나이에 장악원 악공으로 선상되어 한성에서 생활했다. 허억봉은 어려서부터 대금에 뛰어났다. 장악원 첨정 안상이 ‘금합자보’(琴合字譜, 보물 제283호)를 만들 때 대금 악보인 적보(笛譜)는 허억봉에게 맡겼을 정도로 대금의 권위자였다. 허억봉은 음악 실력을 이어받아 장악원 연주자들 사이에서 최고의 직위인 전악까지 맡았다.

그는 김귀영 가의 여종과 부부의 인연을 맺고 허임을 낳은 것으로 추측된다. 어머니가 여종이면 허임도 당연히 종이 되어야 하나 아버지인 허억봉이 장악원 전악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면전되어 허임도 천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주 정착과 침구경험방 집필

어릴 때 부모님의 병 때문에 의원집에서 일하며 의술을 터득한 허임은 20대에 임진왜란의 현장에서 수많은 백성들의 고통을 침과 뜸으로 덜었다. 그는 그 때 이미 의술이 뛰어나 이름을 떨쳤고, 내의원 침의로 천거되어 선조와 광해군 그리고 인조까지 3대에 걸쳐 대궐을 드나든 조선 제일의 명의였다.

허임은 늘 백성들 가운데서 인술을 베풀려고



금강의 곰나루에서 뚝발굴을 따라 들어서면 허임 선생이 논길을 따라 왕진을 가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했다. 틈만 나면 전국의 각 지방을 다니며 아픈 사람을 고쳤다. 장년에는 한 때 나주에 가서 정착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해군의 명령으로 한성으로 불려와 내의원 침의를 하고, 경기지역의 수령직을 맡기도 하며 왕실 가까운 곳에 있어야 했다.

허임은 중년이 지나서야 충청도 공주에 정착했다. 공주는 임진왜란 때 광해군을 수행하던 중에 인연을 맺은 곳이기도 하다. 그는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려내며, 후학들에게 침구술을 가르쳤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신의 의술을 가진 의원이라 칭송하였고, 침의들의 으뜸으로 추앙됐다.

승정원일기에는 공주에 사는 최우량(강화 최씨)이 허임에게서 침술을 배워 의술이 매우 뛰어나다는 기록이 있다. 공주의 곰나루 건너 우성면 내산리에는 허임의 자손들과 그 제자 최우량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지금까지 살고 있다.

허임은 늙어서 평생의 의술을 정리하여 침구경험방을 집필했다. 허임은 침구경험방 서문에서 “감히 스스로를 옛사람의 저술에 견주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생동안 고심한 것을 차마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책 내용이 자신의 평생에 걸친 임상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는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일생 동안 고심한 것이다.

당시 영의정 김류는 ‘만백성을 건강하게 살도록 하려는 임금의 뜻’을 받들어 침구경험방을 출판하도록 명을 내렸다. 이에 내의원 제조 이경석이 호남관찰사인 목성선에게 부탁하여 1644년(인조 22년) 마침내 전주에서 침구경험방이 목판으로 인쇄되어 나왔다.

침구경험방은 조선시대 침의(鍼醫) 허임(許任)이 저술한 조선의 대표적 의서이다. 우리나라 침구전문서의 효시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 책은 조선 사람의 임상을 바탕으로 편찬하여 조선의학의 창출을 선도해 나갔다.

당시까지 조선의학서는 중국 의서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가 많았다. 세종 때의 향약집성방 침구편이나 침구택일편집, 선조 때 유성룡이 쓴 침구요결 등도 거의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침구서를 인용한 것이다. 동의보감도 중국의 의학경전의 재구성을 통한 집대성의 의미가 큰 책이다.

침구경험방은 또 다른 의미에서 동의보감에 결코 뒤지지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허임의 침구경험방은 자신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의 침구술을 정리한 침구전문서로 중국 의학 경전에서 벗어난 조선 침구의술이 독자적으로 자리 잡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허임의 침구경험방은 침뜸 전반에 대한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실용적으로 구성하여 아프고 병든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 이 책은 이후에도 목판본과 활자본으로 다시 간행됐고, 수 없이 많은 필사본이 전국으로 퍼져 나갔으며, 언해본도 나왔다. 침구경험방은 백성들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데 무수히 활용됐다.

조선 명의(名醫)의 대명사 허임

조선 최초의 소아전문의서를 지은 조정준(趙廷俊)은 1749년에 펴낸 그의 급유방(及幼方)에서 허임의 침구법을 전승한 최유태와 오정화를 소개하고 자신도 그 맥을 잇고 있다고 전했다. 또 1784년 일본에 통신사 일행으로 간 조선의 의관 조승수(趙崇壽)는 “동방에 허임(許任)이 있어 침술에 능통하였고, 김중백(金中白)이 그것을 이었는데 지금은 없으니 참으로 애석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기록은 허임 사후 100년~150년이 지난 뒤에도 허임의 침술을 잇는 이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었고, 허임이라는 이름이 명의의 대명사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침구경험방은 일본과 중국으로 전해져 의학 분야에서 한류(韓流)를 만들어 냈다. 일본판 침구경험방은 조선으로 유학 온 일본인 의사 야마가와준안[山川淳菴]이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침구경험방을 가져간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의사는 일본판 침구경험방 서문을 통해 “조선에서는 침구가 의가(醫家)의 요체였고, 그 효험이 가장 빨랐는데 치료방법은 한결같이 모두 허씨의 경험방을 배워서 하는 것이었다.”고 목

격담을 말하고, “조선의 침술이 평소 중국에까지 그 명성이 자자하다는 말이 정말 꾸며낸 말이 아니었다.”며 조선 침구술이 대단히 뛰어났음을 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778년에 다시 간행됐고, 1807년 ‘침구명감(鍼灸明鑑)’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목판으로 인쇄되어 나와 일본 침구의술에 중요한 지침서로 활용됐다.

중국에서는 1874년 청나라 랴오룬홍[廖潤鴻]의 저술로 발간된 침구집성(針灸集成)에 침구경험방을 동의보감의 침구 부분과 함께 그대로 베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책은 청나라 때 가장 유명한 의서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중국의 침구인들에게 널리 활용되고 있다. 중국의 학에도 조선의 허임 침뜸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침구경험방은 세상으로 전해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침서가 됐다.

늘 백성들 가운데서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며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했던 허임은 충청도 공주의 평범한 농촌마을에 정착해 찾아오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한편 후학들에게 침구의술을 가르치고, 평생 고심한 임상경험을 전하기 위해 침구경험방을 집필했다.



일본판 침구경험방 조선으로 유학 온 일본인 의사 야마가와준안이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침구경험방을 가져간 것이 계기가 되었다.

공주시, 시민자전거 열풍



지난 4월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시민자전거를 도입한 공주시가 운영한지 두 달 만에 자전거 열풍에 휩싸였다.

지난 4월 28일, 충남에서는 최초로 공주시가 도입한 시민자전거는 시민의 출·퇴근 수단과 관광객 이용, 시민의 건강용 등으로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전거타기 생활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레저와 여가활용을 위해 총 20대로 운영하는 금강둔치공원의 경우, 이용자가 두 달 간 약 4,460명에 달해 1일 평균 112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해 계민천 자전거도로 2.3km와 정안천에 6km의 꽃길 자전거도로를 조성했고, 금강둔치 2.9km, 금강공원길 0.5km, 금강로 1.2km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공사중에 있다.

한편, 공주시는 최근 정안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이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금강사랑 탐방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 역점시책에 부합하는 좋은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시민편익시설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대백제전의 메인 행사장인
곰나루 부활

곰나루의 부활이 시작됐다. 공주시는 최근 문화적 자부심, 왕국 백제의 뿌리가 내린 곳 곰나루에 백제 르네상스가 시작됨을 알리는 고마복합예술센터 건축설계 당선작을 발표하고 지난 6월 10일 건축설계 설명회 및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에서 천년 백제의 역사적 흐름을 승화시킨 고마복합예술센터 '천년의 빛' 설계안을 제시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시인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작 '천년의 빛'은 공산성 오름과 금강의 흐름을 반영하고 역사적 장소성을 가진 터 위에 공산성과 무령왕릉에서 투영된 흐름과 볼륨을 반영, 자연스러운 흐름에 다양한 행위가 스며들고 유발되는 소통의 공간을 조성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상징성을 잘 표현했다는 평이다.

고마복합예술센터가 완공되면 구 시가지와 곰나루를 연결하는 공주 고도 재생사업과 공예공방촌, 한옥숙박촌과 더불어 공주는 명실공이 백제의 어제와 오늘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또, 대전~당진, 공주~서천을 잇는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과 문화·관광의 도시로 그 면모를 바꾸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 농특산물,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홍보판촉 나서



6월 26일, 공주시 해외시장개척단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농특산물 홍보판촉전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공주시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7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공주 고맛나루 농특산물 해외판촉 홍보전을 개최,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세계적인 품질을 자랑하는 공주알밤을 비롯해 공주의 우수 농특산물인 공주오이, 풋고추 등 농산물과 함께 장아찌, 산삼주 등 가공식품에 대한 홍보판촉전을 펼쳤다.

이준원 시장 일행은 6월 26일 인도네시아 현지시장 공략을 위해 디아몬드 마켓에서 인도네시아 무궁화유통(주)과 수출 협약식을 맺고, 상품 홍보 설명회를 대대적으로 가졌다.

특히 이번 인도네시아 이외에 지난 6월 15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판촉전을 벌여 공주알밤, 배, 풋고추 등 고맛나루 농특산물이 동남아인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7월부터는 독일과 미국 LA등의 판촉행사가 예정돼 있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독일, 미국 등 4개 지역에서 100만불의 농특산물 수출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농촌체험과 숙박 가능한 농업테마공원 준공

농촌지도 기반시설



각종 농촌체험과 휴식, 숙박이 가능한 농업테마공원이 탄생, 또 다른 공주지역의 관광명소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지난 6월 23일 도시민과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초가집 등 체험학습 등을 할 수 있는 농업테마공원의 준공식과 함께, 이날 유용 미생물 배양실, 농기계 보관창고 등 농촌지도 기반시설의 준공으로 인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에 생소한 도시민과 어린이들에게 농업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농촌체험 공간인 농업테마공원은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농업전시관 주변 2,597㎡ 부지 위에 체험시설로 초가집 3동, 두부 체험장, 디딜방아 등 다양한 농기구 체험 시설 등을 갖췄다.

특히, 가마솥, 황토벽, 대청마루 등 옛날 가옥형태로 구성된 초가집은 전통 부엌 체험에서부터 각종 재래 농기구 체험, 초가집 숙박 체험과 채마밭을 조성해 고추, 가지 등을 심어 자연학습까지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 인기 짱

오는 11월 26일까지 보건의로, 복지문화 등 프로그램 운영



지난 3월 12일 신풍면 청흥리 개소식을 시작으로 일정에 들어간 주민지원서비스센터는 지난 6월까지 10개 면, 35개 마을에서 4,27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민원상담을 비롯해 이·미용 봉사, 건강검진 및 물리치료 서비스, 한방진료, 독거노인 및 장애인 방문봉사, 발마사지 서비스, 이동목욕봉사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오지 마을주민들의 건강을 돌봐주고 있다.

또, 생활민원 상담, 농민정보화 교육, 농기계 수리봉사, 장수사진 촬영, 그리고 복지상담 등 복지취약 주민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를 대변하듯 장수사진, 한방 및 의료서비스, 발마사지, 이·미용 등의 프로그램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공주시는 지난 6월 18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하반기 주민지원서비스 일정에 돌입, 총 14회 4,000여명에게 보건의로, 복지문화, 일상생활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사이버 공주시민제, 1주년 맞아 새 도약



지난해 6월, 공주시가 도시·농촌 간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이버 공주시민제가 도입 1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다.

사이버 공주 홈페이지는 개통 1년만에 현재 공주인구인 13만명보다 많은 16만여명의 회원을 확보,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공주시는 지난 6월 4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준원 공주시장, 심재돈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김재현 공주대학교 총장 등 공주지역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공주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사이버시민제의 추진내용을 알리고, 사이버공주시민 확보에 공동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MOU를 맺었다.

이날 기관·단체장들은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디딤돌이 될 사이버시민제도의 성공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업무협조를 약속했다.

이준원 공주시장은 “사이버 공주시민제는 지역 내·외의 거주자 상호간에 정보교환과 도·농 상생교류의 장을 마련, 공주시의 인구증대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 및 관광분야의 활성화로 부유하고 행복한 공주시를 만들어 가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여러 기관·단체장의 적극

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사이버 공주시 민제는 추진에 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주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기존 문화유적지 문화관람, 레저·스포츠, 숙박시설, 각종 축제정보 제공, 지역 농·특산물 할인혜택 등 다양한 특전 외에 백제문화제 행사시 퍼레이드 참여자격 부여, 매년 20명씩 사이버 시민대표 운영위원 선발 등을 통해 공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市, 재정 조기집행 30억 초과달성 상반기 목표대비 101% 달성, 지역경제 회복에 견인차 역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재정 조기집행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공주시가 상반기 목표액을 30억 원 초과 달성했다.

시에 따르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액인 2,863억 원보다 30억 원을 초과 집행해 101%의 실적을 거뒀다고 7월 3일 밝혔다.

충남도 집계에 따르면, 6월말 충남도 내 시·군 평균 지출액은 목표액의 98.4%로 공주시는 이보다 높은 101%를 기록,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재정 조기집행의 최종결과가 목표 초과달성으로 나타나 보람을 느낀다”며, “하반기에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방침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경제난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주시티투어, 도시민 관광객에게 인기



공주 등 문화유적지를 순회하는 공주시티투어가 주말을 맞아 도시민에게 큰 인기가.

시에 따르면, 웰빙시대를 맞아 주말을 이용, 무령왕릉 등 공주의 문화관광지를 둘러보는 공주시티투어에 도시민의 문의가 잇따르면서 공주관광의 인기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주말에 가족, 연인, 동료 단위로 30여명의 비교적 적은 관광객을 싣고 하루 7시간의 충분한 여유 속에 관람할 수 있는 것이 인기의 한 요인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매월 둘째, 넷째 주에는 공주뿐만 아니라 부여의 문화유적지까지 돌아볼 수 있도록 교환 운행하고 있는 점도 서울 등 대도시의 관광객들을 찾게 만드는 데 한 몫을 했다.

공주시는 지난 3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한 차원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1박2일 농촌체험 코스, 농특산물 판매관, 산성 재래시장 5일장 등 관광코스를 추가 시켜 다양한 관광객의 입맛을 충족시키고 있다.

한편, 공주 주요 유적지를 둘러보는 공주투어는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주 일요일과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운영되며, 공주와 부여 공동투어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운영된다.

내고장소식

“올 여름방학은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시원하게...”



공주시 시립도서관이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무더운 여름날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더위를 이겨낼 「여름방학 특별강좌」를 운영한다고 지난 7월 2일 밝혔다.

웅진관에서는 오는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레고탁타 과학교실을 필두로 오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예쁜 손글씨 교실이 열린다.

또, 창의력 가베교실이 초등학교 1학년은 8월 3일부터 7일까지, 초등학교 2학년의 경우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다.

이와 함께, 강북관에서는 오는 7월 23일 「팔죽할멈과 호랑이」의 전래 아동극이, 25일에는 작가 이금이와 함께하는 동화작가 초청강연이 진행된다.

30일에는 우주와 생명의 신비라는 주제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엠베서더 초청강연이 열리며, 28일부터 31일까지는 초등학교 1~6학년까지 다양한 글쓰기, 환경이야기, 우리의 현대 역사를 주제로 여름독서교실이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웅진관 ☎ 840-2468과 강북관 ☎ 840-36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대 약학과 신설한다



공주대(총장 김재현)가 약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6(2+4)년제로 바뀔에 따라 2011학년부터 약대학의 입학정원을 최소 450명 증원하기로 방침을 세우자 각 대학들이 약학과 신설 추진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공주대는 약대학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교수, 지역 정치인, 지역주민 대표, 약학 관련 협회 회장 등이 연계한 ‘공주대학교 약학과 신설추진위원회’를 지난 6월 5일 설립, 학내 연구위원 준비위원장에 홍춘표 교무처장을, 추진위원 분과장에 서광수 자연과학대학장을 위임했다.

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주대에 약학과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면단위별로 벌이고 있다.

공주대 관계자는 “충청지역은 약대학이 전무하여 약사를 희망하는 우수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타 지역에 가서 공부한 그들이 약사가 된 후에도 귀향하지 않아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공주대 약학과 신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약대는 서울대를 비롯해 충남대, 충북대, 중앙대, 조선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등 전국 20개 대학에 개설돼 있고 총 입학정원은 1216명이다. 여기에 약대 신설 의사를 밝힌 대학은 공주대를 비롯하여 전국 10여 군데로 알려졌다.

금학수원지 자연생태학습공원으로 변모



공주시 구도심의 금학수원지가 자연생태학습공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공주시는 상수원이었던 금학동 111-1번지 일원의 금학수원지 2만 9,504㎡를 여가활동과 생태관찰을 위한 시민 친수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지난 3월 착공에 들어간 금학생태공원은 내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총 35억원을 투입, 금학수원지의 경관조명을 최대한 살려 생태관찰시설, 생태교육시설, 산책로 등을 환경·생태체험 학습공간을 조성, 시민휴식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태공원을 과거 동학 우금터 전적지와 연계해 침체된 강남 구도심권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 12월이면, 금학생태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희시설을 활용해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 생태계의 생물들을 관찰·체험할 수 있는 공주 최초의 생태공원이 될 전망이다.

금학수원지가 제민천의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하고, 자연경관 향상과 친환경 생태체험 학습공간으로 조성돼 교육관광의 도시로의 변모를 바꾸는 성장일로가 벌써부터 기대되고 있다.

공주에 양귀비 꽃 만발, 이색적인 풍경 제공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도로변 꽃밭에 형형색색의 활짝 핀 화초 양귀비꽃이 화려한 색상과 함께 우아한 자태를 뽐냈다. 국도 32호선 산정리 도로변에 1,500㎡ 규모로 조성된 화초용 양귀비꽃밭은 공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신풍면사무소에서 조성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이색적인 풍경을 제공하였다.

올해에도 1월초 김병렬 신풍면장을 비롯 직원, 새마을 지도자의 노력으로 꽃씨를 파종, 6월을 맞아 꽃이 만개하면서 지나가는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일반시민들이 좀처럼 구경하기 힘든 양귀비꽃은 양귀비과의 한해살이 꽃으로써 북반구의 온대지방에 분포하고, 높이는 50~150cm이며, 앵숙화, 여춘화라고도 한다. 꽃은 5~6월에 흰색, 홍색, 홍자색, 자색 등 여러 가지 색깔로 피는 게 특징이다.

양귀비꽃의 의미는 꽃 색깔에 따라 다르다. 흰색은 '잠, 망각'을, 붉은색은 '위로, 위안, 몽상'을, 자주색은 '허영, 사치, 환상'을, 그 외에 사랑과 소망을 이루어 주는 꽃, 위로와 위안을 주는 꽃, 꿈을 갖게 하는 꽃, 덧없는 사랑 등 다양한 의미가 있다.

내고장소식

제10회 박동진 판소리 명창 · 명고 대회 성황리에 마쳐



우리 소리의 멋과 흥이 살아 있는 중부권 최대의 판소리 축제인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 대회가 지난 6월 2일 개막돼 4일까지 3일 동안 판소리 중고제의 본향 공주에서 열렸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 대회는 2일 오후 7시 30분에 공주 문예회관에서 국내 명인·명창 초청공연, 김양숙 선생 제자 공연 등 이날 박동진 선생 추모음악회를 시작으로 3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끝마쳤다.

중부권 최대의 판소리 축제인 제10회 박동진 판소리명창·명고대회에서 최현주(명창부)씨와 양신승(명고부)씨가 각각 장원을 차지했다.

명창부 장원을 차지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최현주(여, 31세)씨는 대통령상과 함께 상금 1,000만원을 받았으며, 광주 북구 연제동 양신승(남, 43세)씨는 명고 부문에서 국무총리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한편, 이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명고부)만의 경연대회로 특화시킨 전국 유일의 대회로 인정받고 있다.

제15회 공주시공예품경진대회 대상에 최홍일 씨의 '인화문 분청사기 자라병화병 세트'



제15회 공주시 공예품 경진대회의 대상에 최홍일 씨의 '인화문 분청사기 자라병화병 세트'가 차지했다.

또, 금상에는 이종수 씨의 목공예품 '백제궁에서의 만찬'이, 은상에는 김정아 씨의 금속공예 '백제에 취하다'와 임희승 씨의 도자공예 '풍류'가 각각 수상했으며, 동상에는 팽정화 씨의 도자공예품 '자라병 화합'이, 김혜란 씨의 '연꽃향기', 이영숙 씨의 '뚜껑 있는 합'이 각각 선정됐다.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공주문예회관에서 개최됐던 공주시 공예품 경진대회에는 목공을 비롯한 도자, 금속 등 모두 52명 총 367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는데 세련미가 워낙 뛰어나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이다.

한편, 공주시는 입선이상 우수작을 앞으로 충남도와 전국 공예품대전에 출품할 예정이다.

살구쟁이 학살 터 유해 60년 만에 발굴 시삽

왕촌 희생자 추모예술제 및 개토제 실시



공주지역 유해 발굴 현장에서 본격적인 유해발굴의 첫 삽을 뜨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오후 2시에 공주시 석장리 박물관에서 공주지역 유해발굴을 시작하는 개토제를 가졌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발굴조사단의 유해 발굴 설명회 및 발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2부 행사로는 공주유족회와 공주민주단체협의회 주최로 ‘공주지역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제4회 위령제 및 개토제’가 열렸다.

이번 유해발굴은 ‘공주형무소 재소자 사건’ 및 ‘공주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조사차원으로, 이들 사건은 1950년 7월 9일경 계룡면 왕촌 살구쟁이에서 최대 600여명 가량의 공주지역 보도연맹원과 공주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좌익수들이 트럭으로 실려와 국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학살 되었다는 사건으로 상왕동 등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보도연맹원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시기, 즉 해방 이후 어떤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 아직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기 이전 시기에 좌익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던 사람들로서 정부

수립이후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하고 평범한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공주사람들이었다.

이번 발굴에서는 공주시 상왕동 29-19번지 일대(약 480㎡ 이상)를 유력한 유해 매장 대상지로 보고, 충북대학교 박물관(책임연구원 박선주 교수)팀에 용역을 의뢰, 6월 초부터 유해발굴을 시작하여 8월경에 마무리 할 예정이다.

곰나루 어린이 수영장 개장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공주시 곰나루 관광지내에 위치한 곰나루 어린이 수영장이 지난 7월 4일 개장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개장 기간은 7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51일간이며, 이용 대상은 5세부터 13세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을 맞아 안전요원, 보건요원 등을 집중 배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며, “곰나루 어린이 수영장은 다수의 어린이가 찾고 있는 만큼, 단체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예약해 주고, 수영복과 수영모를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권 사곡면장, 사랑의 자전거 전달



이재권 사곡면장이 지난 6월 22일, 지역 사곡중학교에 학생들의 올바른 자전거타기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동참하는 교육용으로 써달라며, 사비로 자전거 3대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 전달은 상철문화복지재단이 지난 6월 20일 선정한 제7회 상철상신의부문에서 이 면장이 수상을 하게 되어 받은 수상금 50만원과 사비를 보태 만든 사랑의 자전거이기에 더욱더 의미가 높게 평가된다.

KT&G 프로 여자배구단 소망공동체 방문

프리스즌을 맞아 지역 연고 KT&G 프로 여자배구단이 지난 6월 10일 공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소망공동체(원장 정상용)를 방문. 빨래봉사와 신나는 레크리에이션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유난히 큰 키의 여자 배구선수들을 처음 만난 장애인 식구들은 새로운 경험과 만남에 매우 흡족해했으며, 배구선수단 또한 앓된 소녀들처럼 식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에 마냥 행복해했다.

2009 리더스 봉사단 사랑의 집수리 지원사업



리더스봉사단(회장 김명기)에서는 6월 17일(수) 경제가 어려워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줄어 든 요즘 쾌적한 환경에서 밝은 시선으로 세상을 둘러 볼 수 있게끔 집 고쳐주기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온정나누기 사랑의 집수리 사업의 일환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신평면 대룡리의 독거인 맥의 도배, 장판 교체, 전등 교체, 천장 보수 시공 등 일손이 부족한 이웃 농가 김종일 맥 마을 채취 농활 등 30명의 회원이 휴식 없이 흘러내리는 땀에 옷을 적셔 가며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김명기 연합회장과 류영호 명예회장은 “집 수리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자재비를 제외하고는 순수 회원의 정성과 자원 봉사활동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주시, 영농철 지역농가 돕기 리시



공주시(시장 이준원)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한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에는 시정조정실, 옥룡동 직원들이 공주시 상왕2통 이효상 씨 양파밭을 찾아 양파 캐는 작업을 도왔고, 행정지원실 직원들은 계룡면 죽곡리 한 상익 씨 배 재배농가에서 봉지 씌우기를 도와주는 등 보람 있는 하루를 보냈다.

같은 날 주민생활과 직원과 지역자율방재단원 30여명은 농촌일손이 부족한 우성면 방흥리 조한필 씨 배 농가를 찾아 배 봉지 씌우기 작업과 함께 콩 파종을 도왔다.

공주교도소, 금강원에서 봉사활동 펼쳐

공주교도소(소장 최강주)는 지난 5월 14일과 6월 17일 2회에 걸쳐 모범수용자 28명과 함께 공주시 우성면 죽당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금강원을 방문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모범수용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여름 장마철을 대비하여 배수로 정비, 제초작업, 울타리 보수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기쁨과 봉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공주영상대학 금천장학회 장학금 기탁식



2009학년도 금천(錦泉)장학회 장학금 기탁식이 지난 11일 오전 10시 공주영상대학에서 열렸다.

이날 장학금은 금천장학회 회장인 장병석회장이 자신의 고향인 공주발전과 후학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수량 총장님께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돕는 보람 있는 일에 써 달라”고 기탁했다.

효돌이 축구단, 일본 자매도시 야마구찌시에 위생용 마스크 전달

공주시청 효돌이 축구단(단장 전경일 기획예산실장)이 최근 전염성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병한 일본 자매도시 야마구찌시에 위생용 마스크를 전달, 양국 간 우의돈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매(시가 400만원)를 전달했다.

일본 야마구찌시 국제협력부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주시의 큰 호의에 마음 깊이 감사를 표한다며, 전달받은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배부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효돌이 축구단은 일본 야마구찌시와 지난 93년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그동안 음식문화 및 향토문화 등 교류를 활발히 전개해 왔다.



마곡사 관광지, 토요무대 상설 운영

6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앞으로 공주시 마곡사에서 천년고찰에 어울리는 고즈넉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공연이 진행될 전망이다. 공주시는 “6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천년고찰 마곡사 관광지에 작은 음악회인 토요무대를 상설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토요무대에는 국악, 퓨전밴드, 통기타, 우리의 소리, 무용 등 다양한 소재를 갖고, 마곡사만이 갖는 고즈넉한 분위에 무대공연을 더해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추억을 제공키로 했다.

이번 공연은 공주시가 문화체육부에서 실시한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사업에 응모, 충남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도비 2,500만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마련됐다.

따라서, 대전-당진 고속도로의 마곡사IC가 오는 8월 개통되고, 1일 300명이 숙박 가능한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이 지난주 개관함에 따라 대전, 천안, 아산 등 인근 지역 관광객의 방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목 공주시 관광축제팀장은 “웰빙시대를 맞아 주말을 이용해 템플스테이 등 체류형 관광객의 증가로 보다 색다른 볼거리 제공을 위해 이번 음악회를 기획하게 됐다”며, “관광객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남기기 위해 공연기획에서부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년고찰 마곡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로서 조선시대 매월당 김시습 선생, 백범 김구선생의 숨결이 달은 유명 사찰로 유명하다. 축제에 대한 문의는 공주시청 관광축제팀 관광지조성담당 (☎ 041-840-2838)에게 하면 된다.





2009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목요국악상설무대 개최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은 지난 5월 7일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밤에 공주문예회관과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선화당에서 목요국악상설무대를 연다.

목요국악상설무대는 국악인구의 저변을 넓히고, 국악발전에 기여하는 자리를 마련, 자연의 소리와 어우러진 국악의 색다른 맛과 멋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운영기간은 공주문예회관에서는 오는 9월 24일, 10월 8일, 10월 22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3회 공연으로 진행되며, 선화당에서의 마지막 공연은 9월 10일 오후 8시에 펼쳐진다.



프로그램 안내

〈공주문예회관 소공연장〉

9월24일

정악합주 "천년만세" 피리 산조 국악창작곡 판소리 적벽자 중 "새타령"
국악창작곡 삼도설장고

10월8일

산조산주 판소리 흥보가 중 "화초장타령" 국악창작곡 아쟁 산조 국악창작곡 복합주

10월22일

퓨전음악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잔디마당〉

9월10일故임윤수 원장 5주기 추모공연

비나리 정악합주 영산회상 중 "염불, 타령, 군악" 살풀이 거문고산조
가곡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 "신모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사무실(☎041-852-7800)
또는 공공시설관리소 공연기획담당(☎041-840-2859)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선의 명의 허임(許任)

침구경험방 간행 365주년 기념행사

세미나, 기념석, 침뜸역사신문, 강연회, 사진전 등



기념석 제막식을 마친 내빈들의 기념촬영. 비가 오는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었다. 사진 속에 이준원 공주시장, 심대평 국회의원 등의 모습이 보인다.

조선의 명의 허임(許任) 침구경험방 간행 365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6월 18일, 20일, 21일에 공주 우성면 내산리 마을입구 및 웅진 교육박물관과 서울에서 개최됐다.

6월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념 세미나에 이어 20일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사)허임 기념 사업회 김남수 명예회장, 심대평 국회의원, 이준원 공주시장, 윤여현 충남향토사연구회 회장, 박공규 도의원, 시의회 의원 등 각계 인사 200여명과 마을 주민이 참석했으며 또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365주년 기념사업의 후원자 365명'의 명단이 새겨진 기념석이 제막됐고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계인사의 축하 메시지가 전달됐으며 공주민요연구회와 공주연정국악원의 축하 공연 등이 이어졌다.

한편, 조선의 침구의(鍼灸醫) 허임이 평생의 임상을 모아 집필한 '침구경험방'은 조선 전역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온 세상으로 전해져 질병으로 고통 받는 무수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지침서가 됐다.

(사)허임 기념 사업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기반으로 침뜸의 종주국으로 우리의 전통의술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힘차게 더 열심히 노력 하겠다"고 밝혔으며 허임의 후손 허은씨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후원한 각계각층의 관계자들과 행사에 참석한 내외귀빈들에게 감사의 큰절을 올렸다.



정안천변서 ‘우리 밀 체험축제’ 성황리에 막 내려



아이들이 밀대를 엮어 여치집을 만들고 있다.

‘우리 것, 추억 속으로’라는 주제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9일간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정안천변에서 열린 ‘제2회 공주 우리 밀 체험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40년 전의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폭 마련된 이번 축제는 어른들에게는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으로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기간 내내 관광객들이 직접 호룽기와 풍구로 우리 밀을 탈곡해 절구로 겹질을 빻기고 맷돌을 돌려 밀가루를 만들면서 과거 우리 밀을 생산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밀대를 엮어서 만드는 여치집과 다양한 모양의 우리 밀 비누 만들기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 소중한 추억을 담아 갈 수 있는 기념품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아이들은 밀을 이용한 체험 외에도 밀밭 오솔길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행사장 옆 정안천에서 물고기를 잡는 등 가족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경산(景山) 정재욱(鄭在郁) 공주문화원장 퇴임기념 6월 26일~7월 1일까지 공주문화원 '문화가족展' 개최



테이프 커팅을 하는 정재욱 전 원장 내외분과
출품작가들



작품을 돌아보는 내빈들

공주문화원에서는 경산 정재욱 공주문화원장 퇴임기념으로 지난 6월 26일(금) 오후 5시, 우리 소리(이결재 선생)와 한국무용(최선 교수)의 개막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7월 1일(수)까지 6일간 공주문화원 제1전시실에서 '문화가족展'을 개최했다.

41년, 기나긴 세월 젊음을 바쳐 오직 지역의 향토 문화예술 창달에 헌신한 정재욱 원장의 퇴임 기념으로 향토작가 栖然 이화영, 秋公 권영대, 유석근, 신현국, 유순식, 김혜식, 石舟 이종철, 나태주, 鶯草 박흥규, 신윙희, 愚工 이일권 선생 등의 특색 있는 작품 30여점이 전시됐다.

한편, 공주문화원의 한 관계자는 '정재욱 원장의 지난 세월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고자 정성을 담은 작품으로 원장님의 지난 세월을 빛내드리려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상철문화복지재단 제7회 상철상 시상식 거행

인애(仁愛)-김연뢰, 의용(義勇)-공주 관풍정, 신의(信義)-이재권



제6기 상철장학생



제7회 상철상 수상자

2009년도 제7회 상철상 시상식과 제6기 상철장학생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6월 20일 오후 3시에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 상철문화복지재단은 공주시 중·고등학교의 협조로 선발한 제6기 상철장학생(일반 27명, 골롬바 3명) 30명에게 장학증서와 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한편, 고(故) 이상철 선생의 유지에 따라 지난 2003년 설립된 재단법인 상철문화복지재단은 같은 해 6월 27일 제1회 상철문화복지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그간 지역 사회의 성원에 힘입어 매년 장학사업과 시상사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상철상 수상자 인애부문에 김연뢰 선생은 지역에 서예·한문학원을 설립하여 수 십여년 간 후진을 양성해왔으며, 의용부문에는 공주시 관풍정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관풍정은 1936년 지역유지 문재덕 선생에 의해 결성된 국궁 단체로서 현재 50여명의 회원이 수련하고 있다. 그간 관풍정은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2007년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거두는 등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와 함께 백제문화제 기간에는 일반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궁 체험행사를 갖는 등 전래의 국궁을 보급·발전시키는 특징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투 김현준, 사범 이익형)

신의부문에는 이재권 공주 사곡면장이 받았으며, 이재권 면장은 사곡면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사곡면은 2008년 자원봉사 및 사이버공주시민 가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공주문화원, 한국문인협회 공주시부 공동주최

제 14회 효(孝)사상 선양

공주시 초·중·고 학생 글짓기 백일장 성황리 마쳐

공주문화원과 한국문인협회 공주시부(지부장 신현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 14회 효사상 선양 청소년 백일장이 지난 6월 11일 오후 2시 쌍수정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초등부 315명(운문 178명, 산문 137명), 중등부 198명(운문 96명, 산문 102명), 고등부 159명(운문 97명, 산문 62명)등 672명의 공주관 내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한편, 글제로는 초등부 세종대왕/생일, 중등부 한글/선물, 고등부 모국어/여행으로 엮으며, 화창한 날씨 속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그 후 심사를 거쳐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6월 19일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며, 공주교육청 김종대 학무과장을 비롯해 학생 및 교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과 상품을 전달하였다. 또한, 입상작품은 본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공주문화」 책자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공주문화원과 한국문인협회 공주시부는 효 사상을 널리 함양·고취시키고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소질계발, 독서습관을 생활화하는데 기여코자 공주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쌍수정 광장 그늘에서 학생들이 글짓기에 몰두하고 있다.



제14회 “효”사상선양 공주시 초,중,고 학생글짓기백일장 입상자 명단

산 문 부

초등부

장원 | 조윤희

차상 | 장재희, 빈순용, 선새롬, 임혜빈, 김효정, 권재희, 양혜지

차하 | 임유진, 김지현, 황소현, 임지윤, 장진영, 임령경, 안주영, 이근영, 선우소희, 강선화, 문정현, 서민철

참방 | 강윤정, 박솔희, 김나경, 이해원, 정나현, 노승희, 임혜진, 전해주, 유장주, 류승지, 박정은, 정윤희, 장미환, 홍성찬

(지도교사상-정향연/공주신월초등학교)

중등부

장원 | 김민주

차상 | 신혜지, 오연정, 전예리, 장동희, 박주영, 김현겸

차하 | 조윤영, 송인수, 서유진, 김희영, 허선재, 조규희, 이인철, 정소라, 권소연, 이도한

참방 | 이미현, 박소희, 이성주, 김연진

(지도교사상-김현정/공주북중학교)

고등부

장원 | 김승숙

차상 | 조해동, 신한솔, 이수인, 김민석, 황태일

차하 | 손은주, 손민규, 임예슬, 이보미, 김예림, 조은솔, 최상민, 심혜인

참방 | 유지은, 이누리, 이보영, 이은지, 이정민, 성문규, 황준영, 오예린, 황귀빈, 오형승, 진효정

(지도교사상-김선하/공주여자고등학교)

운 문 부

초등부

장원 | 이승연

차상 | 정성진, 김세인, 김경록, 전한빛, 이연종, 안빛이, 양지은

차하 | 원종혁, 윤예진, 신아진, 명재원, 남현주, 문숙현, 신윤정, 양지은, 이소령, 김예은, 정다은, 김다래

참방 | 김해슬, 엄송배, 김지호, 박소연, 박선주, 정진솔, 전다영, 이종혁, 김경인, 김민아, 전한별, 원효경, 이경빈

중등부

장원 | 박연하

차상 | 황인정, 신강산, 김희정, 박현서, 이종호, 조예림

차하 | 김시연, 김병수, 강하일, 강솔비, 박량춘, 김해미, 홍지선, 김선희, 정세희, 윤수정

참방 | 박수경, 왕예현, 정소현, 백일문, 조선희, 이다솔, 정혜선, 김성중, 조신영, 한수지

고등부

장원 | 송우현

차상 | 최유리, 김혜리, 김정은, 김예린, 박인영, 조해인

차하 | 이진형, 신오수, 박지예, 백지혜, 김경인, 이유미, 이제경, 맹현정, 이승은, 오윤정

참방 | 김동수, 이성희, 손도영, 임은영, 김현태, 강민수, 김가영, 정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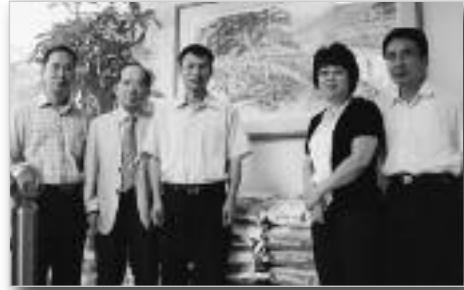


공주문화원장 이·취임식에 쌀을 기탁해 주신 분들

이번 7월 1일 공주문화원장 이·취임식에 보내 주신 여러분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탁해 주신 쌀은 공주시청 관계자에게 기탁자 명의로 전달하여 불우이웃을 위해 씌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주문화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항상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주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쌀 전달 사진 왼쪽부터 공주시청 박용규 씨, 나태주 원장, 현대수 국장, 주진영 씨, 조선지 씨

NO	직 장 · 주 소	성 명
1	(사)허임기념사업회	김남수
2	(재)상철문화복지재단	이복남
3	공주대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	
4	공주대 최고경영자과정7기원우	
5	공주대학교	김재현
6	공주박물관	박방룡
7	공주시 우성면	허 은
8	공주식물원조경	이영섭
9	공주중앙신협	윤석두
10	공주합동인쇄사	조미선
11	박치과의원	박희준
12	백제해외관광	이선우
13	신관동	임좌빈
14	역사문화연구원	변평섭
15	우성면동곡	노재경
16	웅진새마을금고	김동호
17	의당초등학교	김동옥
18	태안문화원	명수남
19	특급뉴스	김광섭
20	해동아구	신대현
21		박성훈



2009,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하반기 개강안내

공주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문화 저변층을 확대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공주시민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하반기 개강 프로그램

	프로그램	강 사	요일	시 간
1	국선도(단전호흡)	이규호	월/수	오후 7시 ~ 9시 (60시간 30회)
2	풍물(야간)	임장묵	화/목	오후 7시 ~ 9시 (60시간 30회)
3	댄스스포츠(주간)	최경희	월/수	오전 10시 ~ 12시 (60시간 30회)
4	댄스스포츠(야간)	최경희	월/수	오후 7시 ~ 9시 (60시간 30회)
5	요가(주간)	정윤경	월/수	오전 10시 ~ 12시 (60시간 30회)
6	요가(야간)	박혜정	화/목	오후 7시 ~ 9시 (60시간 30회)
7	가곡	이광형	월	오후 7시 ~ 9시 (40시간 20회)
8	서예/사군자	이일권	월/목	오후 7시 ~ 9시 (60시간 30회)
9	생활 일본어	우매자와미또꼬	화/목	오후 7시 ~ 9시 (60시간 30회)
10	닥종이	김승임	목	오전 10시 ~ 12시 (40시간 20회)
11	사진	최근태	수	오후 7시 ~ 9시 (40시간 20회)
12	오카리나	정현정	목	오후 7시 ~ 9시 (40시간 20회)
13	생활 중국어	우지평	월/금	오후 7시 ~ 9시 (60시간 30회)
14	한국무용	최 선	금	오후 7시 ~ 9시 (40시간 20회)
15	다도	이효천	수	오후 2시 ~ 4시 (40시간 20회)



[중등부 운문 장원]

선물

장기중학교 1학년 박연하

새싹이 돋는 싱그러운 봄이면
나를 반겨주었던 화사한 벚꽃
사르르 사르르 가볍게 날려
내 어깨에 사뿐히 내려앉았던 벚꽃은
할머니의 땀방울이었을까
채소는 손으로 길러먹어야 한다면
밥을 일구시던 할머니의 땀방울
향기로웠던 분홍 벚꽃

숲에서 망아지처럼 뛰어놀다가
넘어져 생겼던 작은 상처
울먹이던 나의 상처를 씻어주었던
아름까지도 씻어주었던 시냇물은
할머니의 눈물이었을까
내가 심하게 앓고 있을 때면
남몰래 우셨던 할머니의 눈물
투명하게 흐르던 맑은 시냇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날마다 보던
하늘까지도 품을 듯 넓은 논밭
그 위에서 잔잔히 물결치던
황금빛으로 물든 벼 이삭들은
할머니의 웃음이었을까
주름살 깊이 새겨져 있던 미소
정겨움 가득한 할머니의 웃음
눈부시게 빛나던 가을 들판

그리고 어느 겨울날
눈이 시리도록 하얗던 눈송이들
하늘하늘 내려와 소복히 쌓여서
온 세상을 희게 덮어주었던
눈송이들을 닮았던 할머니의 손
거칠고 부르튼 못생긴 손이었지만
내게는 숨털 같았던 할머니의 손

따뜻한 손으로 만들어 주셨던
더 따뜻한 선물은
손수 떠 주셨던 병어리장갑
털실마다 맺혀있던 할머니의 사랑
그 사랑을 입고 행복했던 나
너무도 아름다웠던 나만의 선물
영원토록 간직될 병어리장갑



감상포인트

자연(벚꽃, 시냇물, 벼이삭, 눈송이)을 할머니와 연결시켜(땀방울, 눈물, 웃음, 손) 글로 나타낸 점이 놀랍습니다. 평소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른들 글 못지 않게 감동이 있는 글입니다.(나태주)

[초등부 산문 장원]

생 일

주봉초등학교 4학년 조 윤 희

우와! 오늘은 내 생일이다.

“윤희야, 생일선물 뭐 받고 싶니?”

“음... 귀여운 강아지!”

“윤희야, 강아지는 털이 빠지니깐 불편하지 않을까?”

“치~ 난 강아지 갖고 싶단 말이야”

“에휴~ 알았어. 강아지 사줄게.”

“야호! 신난다.”

엄마는 예쁜 상자에 강아지를 넣어 주셨다. 저녁에 가족이 모두 모여 생일파티를 하는데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왜 우냐고 물었는데 엄마는 기뻐서 그런다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는 케익을 자르는데 정말 행복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다. 집에서 놀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받아보니 엄마였다.

“윤희야, 엄마가 잠깐 여행을 왔어.”

“언제? 나 학교 갔을 때? 언제 오는데?”

“한 이 년 정도...”

“그렇게 많이? 왜 늦게 와? 안 돼 내일 와~ 엄마 꼭 내일 와야 돼”

엄마는 하는 수 없이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엄마는 오지 않았다.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나는 아빠께 여쭙어 보았다.

“아빠 엄마 언제와? 어제 온다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윤희야, 엄마가 여행을 갔는데 이모를 만나서 당분간은 거기서 지내고 온대”

“왜? 엄마 어제 온다고 했잖아~”

나는 눈물을 닦으며 소리쳤다. 아빠는 계속 묵묵히 서 계셨다. 지금 4학년이 되어서도 엄마는 오지 않았다. 나는 깨달았다. 내 생일파티 때 엄마가 흘리던 눈물의 의미를. 엄마와 함께 했던 마지막 생일파티는 내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말도 잘 들을 걸. 흐르는 눈물 앞에 앞서는 후회가 내 마음을 꽉 채웠다. 내 생일 선물도 강아지 말고 책을 살 걸... 우리 엄마는 항상 말씀 하셨다. 책에는 꿀보다 달은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나중이라도 엄마를 만나게 되면 효도를 해야지. 내 마음에는 굳은 다짐이 새겨졌다.

그 때 마지막 생일파티인줄만 알았더라면,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을 텐데... 사랑한다는 말도 전하지 못하고 엄마와 이별을 했던 내가 참 안타깝다.

‘엄마 언젠가 만날 수 있는 거죠?’ 나는 혼자 책상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언젠가 보게 될 엄마... 엄마 고맙고 보고 싶고 사랑해요.



감상포인트

짧지만 짜임이 단단한 글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사건 별로 깔끔하게 정리하여 쓴 점도 훌륭합니다. 심사를 하면서 심사위원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눈물 글썽었다고 들었습니다.(나태주)

편집후기

- 이번호는 나태주 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로 내놓은 <공주문화>이다. 그러므로 상당부분 과거의 체제를 그대로 따랐다.
- 편집실 체제를 다소 실무형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편집위원도 교체하였다. 앞으로는 문화원 직원 중심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잡지를 만들어 나가려 한다. 가능하다면 리포터 제도를 활용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싶다.
- 모든 기사와 원고는 실명화를 원칙으로 하고 일류의 문화잡지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투고자나 집필자들도 품위 있는 글, 책임 있는 글을 써주실 것을 믿고 바란다.
- 우리의 목표는 이 책을 읽는 많은 분들로부터 ‘참 좋다’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다. 또한 우리의 적은 오자이고 애매모호한 문장이고 향기가 담기지 않은 내용이다.

<공주문화> 원고모집

공주인의 문화와 정신의 향기가 담길 <공주문화>가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원고를 기다립니다. 공주를 보다 높은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즐겨 다음과 같이 원고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집 내용 - 시, 수필, 편지글과 같은 문예물
- 고장의 소식이나 자랑
 - 개인이나 집단의 선행
 - 특별히 알리고 싶은 직장이나 기업체의 미담

보내실 곳 - 우)314-100 충남 공주시 반죽동 184-2 공주문화원

E-mail: 8529005@hanmail.net